지역주민의 문화마당

광명문화저널

광명문화저널 • 2004 - 제 12호



광명문화원 제5대 원장으로 선출된 안수남신임원장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의 의지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있다.

특집 - 2004 광명을 준비하는 사람들 / **지역속으로** - 광명의 인물 강석기 / **제언** - 살고싶은 도시...
기획 - 광명의 동문화를 찾아서, 잊혀져 가는것들 / **문화정보** - 2004 문광부지정 축제

2004 12호

광명문화원



엄마걱정

기형도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어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Contents

2 **특집** – 2004년 광명을 준비하는 사람들

10 **칼럼 -** 청소년의 성의식에 대하여

지역속으로

12 광명의 인물 – 강석기
15 충현박물관
16 지금 광명에선– 청소년 의제 21
17 문화원/지역문화소식

26 **제언**– 살고싶은도시, 살기싫은도시
28 만남 – 구름산 자연학교 김현주 교사
32 동아리 탐방 – 반작

34 **기고문** – 대중매체속의 이미지 변화

기획

36 광명의 동문화 (철산 1동~4동)
42 광명의 마을을 찾아 – 70동마을
44 잊혀져가는것들 – 썰매타기

46 **기고문 -** 관객과 함께하는 연극을 위하여

48 **만화속으로 -** 그 상자속엔 무엇이 들었을까?

문화정보

50 2004년문화인물 / 문광부 지정 축제
56 겨울 그리고 축제

60 **다시 읽는 고전 - 단성소**

62 **이야기 만화 - 오리대감**

66 **시민 글마당**

70 **문화원 소개**

광명문화저널 - 제 12호 2004. 01

광명문화저널	제 12 호
발행처	광명문화원
발행인	정원조
편집인	이종락
편집팀	한욱현 / 이은경 / 심평섭
객원기자	양철원 / 서두원 / 강찬호 / 정종해
감 수	윤 철
발행일	2004. 01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광명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04년 광명을 준비하는 사람들 - 하안 종합 사회복지관



■ 모선영 | 하안 종합 사회복지관 관장 ■

2004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과 가까이 가는 해로 삼겠습니다. 지역기관과 단체와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내실을 기하고 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전문적 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맨투맨 방식의 접근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복지관의 활동을 알려 갈 것입니다.

수탁운영 중인 하안3동 공부방이 그 동안 열람실 중심의 기능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컴퓨터, 도서, CD 등 자료를 새롭게 확보하고 이를 비치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의 기능이 확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복지관도 전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사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직 미흡하여 약물남용 예방사업이나, 또래상담,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연계 청소년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광명을 준비하는 사람들 -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강완규 | 광명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총무팀장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광명시의 장애인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본이념으로 장애인의 전인재활과 사회통합 · 자립생활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함께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희 복지관은 이러한 슬픈 현실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꿈을 키워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주지 않아도 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는 노래 가사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여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저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도움만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 사랑의 빛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장애인, 후원회원, 자원봉사자, 직원 모두가 사랑하는 한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광명을 준비하는 사람들 - 광명시 평생 학습원

■ 장동만 | 평생학습원 교육운영팀장 ■

2004년도는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지 5주년이 되는 해이며, 평생학습도시의 거점센터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에서 소외됨 없이 사회적인 삶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지역의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하여 실천하여온 광명시평생학습원이 3년째를 맞는 해입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하여 변화하는 시민들의 모습 속에서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심한 좌절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서 일구어온 노력을 인정받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35만의 광명시민들의 염원과 지역의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결과의 산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광명시평생학습원은 열림, 나눔, 섬김의 자세로 모든 광명시민이 즐겁게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평생학습의 너른 마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4년 평생학습의 진원지 광명의 희망찬 도약을 위하여...

2004년 광명을 준비하는 사람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지부

■ 양정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지부 사무처장 ■

광명경실련은 1992년 7월 28일 창립발기인모임을 시작으로 1992년 9월 6일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명경실련은 경제정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12년간 쉼 없이 활동하여 왔습니다.

250여명의 회원과 살기 좋은 아파트만들기연대모임, 시민감시단, 환경모임 구름산두꺼비등 3개의 회원모임과 여성위원회, 회원활동위원회 그리고 산하에 광명시민신문이 있습니다.

광명경실련은 지역 내에서의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지역행정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지역현안에 시민들과 함께 하여 왔습니다.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한 시 행정 및 의회 감시활동, 조례개정운동, 무분별한 지역개발에 대한 감시활동, 부정부패추방운동 등 많은 지역현안에 대응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광명경실련은 지난 12년간 광명의 척박한 시민운동의 토양, 지역정체성의 부재속에서도 묵묵히 시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많은 부분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었고,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하던 순간 또한 있었습니다. 허나 저희는 결코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았고, 다시 박차고 일어나 회원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지금의 광명경실련을 만들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12년간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준 애정을 바탕으로, 끈끈하게 다져진 회원들간의 신뢰의 힘으로, 저희 광명경실련은 다수의 시민이 권리를 누리는 사회, 서로 나누는 공동체의 전형을 세워 나가기 위하여 전진해 갈 것입니다.

2004년 광명을 준비하는 사람들 - 기형도 기념사업회

■ 윤진원 | 기형도 기념사업회 /광명시청 ■

기형도기념사업회는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우선 우리는 기형도의 집을 살리기에 초점을 모으기로 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기형도 기념사업회는 시인 기형도가 우리지역에 인지도가 너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한 홍보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에 들어 갔다.
지역기관 단체장, 지역유지,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왔으며 지역사회의 문화행사와 시인 기형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문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새내기들에게는 기형도가 가지고 있는 시적 세계는 정말로 크다. 더욱이 15년 전에 운명을 달리한 한 젊은 시인이 시간적 공간을 뛰어넘어, 신세대들이 그의 시를 읽으며 많은 질문과 생각을 한다는 사실은 기형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집으로는 보기 드물게 년 간 1만 5천부가 팔리고 있다는 수치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혹자는 기형도의 문학적인 평가가 너무 이르다는 핑계로 그를 대수롭게 보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기형도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알려지지 못한 것은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자기 독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형도 기념사업회는 올해도 더 많은 활동으로 기형도가 우리광명시에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우리는 학문적인 논리를 떠나 기형도의 삶과 시가 역사가 될 때까지 그의 문학적 토양이 되었던 옛집을 보호하지 못하면 문화적 공허감과 그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2004년 광명을 준비하는 사람들 - 철산종합사회복지관

■ 배연희 |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1993년 1월 4일 부터 지역적 특성과 시대변화를 예측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활용과 고정후원자(처)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장수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우리 복지관의 특징입니다. 지난 10년은 물론 지속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변화와 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와 회원간 정보교환 등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참되게 변모하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2004년 광명을 준비하는 사람들 -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 이은경 |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기획 부장 ■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청소년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에도 어느덧 2004 갑신년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감성에 물들지 않은 맑은 마음을 지닌 청소년은 비워진 컵이기에 샘물을 담을 수 있고, 낙서 없는 백지이기에 명화(名畵)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은 2004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즉, 2004 Youth Festival, 청소년문화만들기(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청소년정기공연), 청소년경제, 의회 교실, 금주, 금연학교, 청소년자원봉사 School,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대중음악아카데미, 청소년문화기행, 테마가 있는 가족여행 등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빈컵에 샘물을 담고, 하얀 도화지에 붓을 휘날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2004년도에도 힘차게 발돋음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청소년 파이팅!!

2004년 광명을 준비하는 사람들 - 광명문화의집

■정현혜 | 광명문화의집 대리) ■

2004년은 광명문화의집이 지역문화기관의 거점으로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7만 여명 이상의 광명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휴식처로 자리를 잡아 오고 있는 광명문화의집은 2004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발레, 한국무용, 동화구연과 성인들을 위한 서예, 재즈댄스, 요가, 일본어 등 강좌를 통해 문화적 활동을 진행 하며 대중음악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가족여행, 여름방학 캠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와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광명문화의집이 되도록 2004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의 성의식에 대하여





■ 윤철 |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는 이미 중학교 때 다 봐요. 자기 방에서 부모 몰래 보는 포르노 사이트를 어떻게 못 보게 할 수 있죠." 중 3이 되묻는다. 자기 반에는 3분의 1 정도가 성경험이 있다고 평범하게 이야기 하는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이다. 모 공고 2학년에 다니는 한 학생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몇 번째인지 조차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청소년들과 성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쉽게 들리는 이야기들이며 현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매스컴에 보도된 중·고등학생의 등교길 출산의 경우는 바람직한 성에 대한 인식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 및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에 따른 성에 대한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올바른 지식습득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교육활동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성 평등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2003년 6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명시의 중고등학생 1,6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 즉, 성의 관심 정도, 동성애, 혼전 순결, 낙태에 관한 의식과 성접촉 매체, 성고민, 성욕구 해결방법, 성지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 정도는?
2. 청소년들의 동성애, 혼전순결, 낙태에 관한 인식 정도는?
3. 청소년들의 성 접촉 매체는?
4. 청소년들의 성고민은?
5. 청소년들의 성욕구 해결방법은?
6. 왜곡된 성의 올바른 대처방안은?



첫째,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가끔 이야기 하며(38.8%),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성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의 느낌은 흥미롭다(25.4%)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이성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40.9%),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능하나 인정은 못한다(27.3%)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인정할 수 있다(14.2%)

라고 응답한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성관계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37.3%가 결혼 후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랑을 전제로라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17.8%) 또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낙태에 관해서는 여학생의 경우 할 수 없다(43.2%)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예상외로 할 수 있다(26.8%)의 비율 또한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넷째, 청소년들은 인터넷(59.4%)을 통해 성에 대해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성지식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학교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39.3%가 응답하였다.

다섯째, 성고민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으며(28.7%), 남학생의 경우는 9.0%가 성욕구에 관한 고민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임신, 출산, 성병에 관한 고민(4.2%)이 많았다. 또한, 성욕구 해결방법으로 취미활동을 통해 해결한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광명시 청소년들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건전한 성문화 형성과 올바른 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청소년의 성교육을 전적으로 무절제하고 자극적인 잡지, 비디오 등 대중매체에 맡겨 버린 결과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지식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전문기관 또는 청소년 시설에서의 올바른 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므로 유해한 정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선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부모들에게 사이버 공간을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자녀와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차단프로그램 보급의 활성화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상설화가 요구된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특성상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이며 미숙하고 무분별한 성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성교제를 건전하게 이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피임이나 임신 등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과 함께 성매매 예방과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대처 교육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 성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 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의 공동으로 성교육 및 성 예방을 위한 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사회 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어려서부터 성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연구보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광명시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연락해주세요 Tel. 02) 2680-6163

임금의 사돈에서 멸문지화까지...

비운의 세자빈, 민회빈 강씨의 아버지 강석기

■ 양철원 | 광명문화원 향토사료조사위원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성씨 중 본관(本貫)을 광명 지역으로 하고 있는 성씨는 금천(衿川) 강씨가 유일하다. 금천은 오늘날의 서울시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및 광명시, 안양시 일부를 포함한 넓은 지역이었다. 금천 강씨의 파조로 널리 알려진 강감찬은 고려의 인물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위인이다. 알다시피 강감찬의 출생지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이다. 이를 기려 강감찬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본관을 금천으로 한 것이다.

1500년대도 기울어 가는 1580년 오늘의 주인공인 월당(月塘) 강석기가 이조참의인 강찬과 첨지 김은휘의 맏딸인 광산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시기는 조선의 성리학이 퇴계와 율곡으로 대표되는 인물을 넘어 더욱 발전해가는 때였다. 마침 어머니인 광산 김씨는 율곡의 적통을 이어받았다고 여겨지던 당대의 명유(名儒)인 사계(沙溪) 김장생(1548-1631)의 사촌이었다.

강석기는 어려서부터 김장생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닦을 기회가 있었다. 사계 김장생의 문하에서는 후대에 조선 성리학의 기틀을 잡은 김집, 송시열, 송준길, 장유, 이유태, 이후원 등의 쟁쟁한 인물이 있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서인 및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자연스럽게 풍부한 학문의 세계에 몸담게 된 강석기는 예론(禮論)에 밝았던 스승 김장생의 학문을 이어받아 예론에 정통한 제자로 인정받았다.

강석기는 부모의 거상(居喪)을 마친 후인 1612년(광해군 4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4년 후인 1616년(광해군8년)에 증광시에 병과 1등으로 입격하였다. 첫 관직은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였다. 이 당시에는 광해군과 서모인 인목대비 사이에 갈등이 심하던 시기로 결국 광해군은 인목대비를 폐하게 된다. 광해군의 강경한 입장에 눌려 많은 이들이 원칙을 저버릴 때 강석기는 당하관(정3품 이하)의 중급 관리였지만 폐비 논의에 불참하는 기개를 보였다.



실록에 따르면 당하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는 박자응과 강석기 뿐이었다.

결국 관직을 버린 강석기는 가족의 선

산이 있는 금천(오늘날의 광명시 학온동 능말)으로 낙향하여서 연못을 만들어 소일하며 학문에 힘썼다. 그의 호인 월당은 달빛아래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이 때 지은 것이다.

1623년 광해군에 반대하던 서인세력과 남인 일부가 힘을 합쳐 인조반정을 일으켜 성공하였다. 은거하던 강석기도 다시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전반적으로 전제적인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였다. 이는 독단에 빠지기 쉬운 왕권의 견제를 통한 민본주의 정치의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선비들이 과감하게 임금에게 간쟁(諫爭)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직위를 버리는 것을 명예로 삼기도 하였다.

40대의 장년에 접어들어 관직에 돌아온 든 강석기는 홍문관 수찬으로 재직하며 조정의 기강과 사대부의 간쟁의 중용, 효를 중시할 것과 논어 등의 서적을 강론하여 임금의 신임을 얻었다.

인조 3년(1625년)에는 원자를 세자로 삼고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을 두었는데 사서(司書, 정6품 관직)로 임명받았다. 어쩌면 훗날 사위가 되는 소현세자와의 인연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인조는 반정을 통해 왕위를 이은 관계로 내부에도 복잡한 세력간의 갈등이 존재하였다. 반정세력은 직접 반정에 참여한 공신과 참여하지 않았으나 논의가 강경하고 청망을 지닌 세력으로 나뉘었다. 이들은 공서(功西)와 청서(淸西)로 불리었다. 청서는 신흠, 오윤겸, 김상용, 나만갑과 강석기로 대표되는 세력이었다.

1627년(인조 5년), 정묘년이 밝았다. 이해 경상도 암행어사에 임명받아 가던 중 정묘호란의 소식을 듣고 인조를 따라 강화도로 들어갔다. 최명길를 비롯한 화의파에 의견과 인조의 뜻에 따라 화의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집권 서인 세력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쟁의 계속을 주장하였는데 강석기 역시 같은 입장에 있었다. 특히 강석기는 강경 척화론자인 윤황을 변호하다가 인조의 노여움을 사 양근(지금의 양평지역)군수로 좌천되었다. 이에 스승인 김장생을 비롯하여 같은 금천 출신인 이원익, 정경세 등의 구원 상소가 잇따르고 부응교 유백증(兪伯曾), 부교리 이소한(李昭漢), 이성신(李省身) 등의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니 철회되기에 이르렀다.

정묘호란의 결과는 후금과 조선 양국에도 만족스럽지 못하였기에 9년 후에 일어나 병자호란(1636년)의 원인이 되었다.

강석기는 슬하에 5남 3녀를 두었는데 이 해에 둘째딸이 세자빈에 간택되었다. 꿈에도 생각지 않은 집안 전체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정초와 연말에 걸쳐 일어난 것이다. 강석기는 척화(斥和)의 주장으로 청의(淸議)를 얻었고 겨울에는 임금과 사돈이 되는 다시없는 영예를 얻었으나 이는 후에 일어난 병자호란의 결과로 둘째딸인 민회빈 강씨가 남편인 소현세자와 같이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끌려가 8년여에 걸친 볼모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의 활동이 인조를 비롯한 권신세력의 미움을 받아 죽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둘째딸인 민회빈뿐만 아니라 아들 5형제 중 4형제와 부인도 정경부인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장살(仗殺) 되었다.

한편 임금과 사돈이 된 강석기는 더욱 근신하여 청빈한 모습을 보여 사치하지 않았다. 강석기의 의론이 주로 강경한 청서였기에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 존경을 받은 것은 이런 청빈한 모습에서 연유한 것이다.

1628년(인조 6년) 잇따른 전란으로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의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다. 강석기는 우부승지로 묘향산의 사고를 무주의 적상산성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 후 5년 후 그의 주장대로 옮겨지니 선견지명을 엿볼 수 있다.
이후로 도승지, 대사헌, 이, 병조의 참판 등을 역임하며 중견 관료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인조는 끊임없이 자신의 아버지인 정원군(1580-1619)을 원종으로 추숭(追崇)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반정으로 집권하였기에 왕통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무리하게 종법상의 정통을 확립한 사례이다. 4년여 간에 걸친 왕과 신하들간의 대립 끝에 1635년(인조13년) 3월 원종 내외의 신주(神主)를 종묘로 모심으로 추숭은 성공하였다. 그 전해 인조는 반대론자들을 대거 숙청하였는데 강석기는 대사헌으로 재직하면서 반대론을 펼쳐 체직되고 만다. 강석기는 다시 금천의 선산에서 우거(寓居)하였다. 그 후 1636년 (인조14년)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가 혼인한지 9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더구나 첫 아이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었다. 이를 기념하는 대대적인 사면이 이어져 원손의 외할아버지인 강석기도 사면되고 5월에는 예조판서에 기용된다. 이 때 원손을 외가인 강석기의 집에서 양육하였는데 항상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하니 인조는 크게 신임하였다. 예조판서 재임 중에는 특히 지방 교육에 관한 정책을 펴서 백성을 교화하는데 노력하였다.

원손이 태어난 해 조선에 다시 한번 불행이 닥치니 만주에서 발흥한 여진족이 후금(後金)에서 더욱 강성해져 청(淸)으로 국호를 고치고 중원을 넘보던 때였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배후에 자리한 친명사대의 나라 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은 임진왜란의 여파로 아직 안정을 못 찾을때라 경제적인 피폐로 국방력도 약했고 정신적으로는 아직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에 사대(事大)를 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에 젖어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은 후금시절에 한번 침략하여 정묘호란을 일으켰지만 조선은 후에도 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의 요구를 피해 갈만한 외교력도 없었다. 결국 청은 1636년 12월 조선에 13만의 군대를 보내 조선을 침략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이다. 강석기와 세자빈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으나 1월에 청군의 공세 속에 포로가 되고 만다. 강석기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세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세자빈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포로가 되어 남한산성 근처에 이르렀을 때 삼전도에서 항복한 인조를 만나니 통곡이 끊이지 않았다.

항복의 결과 소현세자를 비롯한 세자빈도 철군하는 청나라 군사와 함께 거치른 만주로 떠나게 되었다. 강석기는 딸을 본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전후에는 예조, 이조판서에 이어 우의정에 임명받았다. 인조가 강석기의 뜻을 알고 예조판서에 임명했는데 임명과정에서 특별히 한 명만 추천을 하니 (관례상 세 명을 추천함) 이조판서 최명길이 전례에 없는 일이라는 감탄하였다. 이조판서에 제수된 후에는 여러 관료들이 자리를 벗어난 상황을 잘 헤쳐가 전후 문란한 기강을 바로잡는데 노력하였다.
1643년(인조 21년) 6월 13일 쇠약해진 강석기는 세상을 뜨니 향년 64세였다.

부음을 들은 인조는 3일간 조회를 철폐하고 3년간 급료를 내려 보낼 것을 명함으로 애도를 표하였다. 강석기는 외척이었지만 항상 바른 자세로 청빈한 삶을 살아 내외에 인망이 높았다 후에 불행이 가문에 닥칠때도 이런 자세의 인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고 노력했고 진실을 알리려고 하였다.

호인 월당(月塘)처럼 달빛 비추는 연못같이 조용히 살려고 하였으나 시대가 정변과 전쟁이 수상한 시절이라 뜻대로 살지는 못하였다.



조선시대 청백리의 표상 이원익의 유물과 유적을 간직한

충현박물관

소하동에 오리 이원익의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한 '충현 박물관'이 있다. 일종의 전문 박물관 형태면서 관감당, 충현서원지 등 야외 유적지도 함께 볼수 있는 곳이다. 충현박물관은 오리 이원익과 관련된 204종 637점의 유물 등 소장품들이 이 박물관에 전시 등의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종전에 제한적으로 개방을 했던 '충현서원지'가 '충현박물관' 형태로 본격적으로 개방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향토 및 문화 교육에 기여를 하고 있다.

조선시 청백리의 표상, 오리 이원익



오리 이원익(1547년~1634년) 대감은 조선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낸 바 있는 대표적인 청백리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원익은 선조 때 청백리에 뽑혔으며, 문장에 뛰어나고 성품이 원만하여 두루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 임진왜란 때는 평안도 순찰사, 제도 도체찰사가 되어 왜군과 맞서 싸워 큰 공을 세웠으며, 그 공로로 선조37년(1604년)에 호성공신 2등으로 완평부원군에 봉해지기도 했다.

1608년에는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여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시켜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군병방수제도를 개혁하여 군복무를 단축하였다. 광해군의 폭정에 대해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다시 영의정에 발탁이 되어 민심의 수습과 국가 안정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원익이 세상을 떠난 후 효종9년(1658년)에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현재의 경기도 광명시에 그를 배향하는 삼현사를 세우고, 후에 충현사라고 불리었다. 그후 숙종 2년(1676년)에 임금이 직접 '충현서원'이라고 이름지어 지금까지 보존을 해온 것인데, 이번에 이 일대 전체가 박물관으로 조성이 되는 것이다.

약 4,500여평의 부지에 7개의 건물로 조성된 박물관은 경기도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된 이원익의 관감당과 후손이 살던 오리종택,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1호인 오리영우를 비롯한 건축물과 이익의 영정 4점, 친필 및 시, 임금의 교서, 연첩, 문집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원익 4세손인 이존도의 유물을 비롯한 후손들의 유물과 고서, 목기, 백자기, 가구 및 석기, 묘비와 묘석, 조선시대 주요 인물의 간찰, 친필 등이 유물로 조성되었다.



청소년의 제 21을 만드는 사람들

청소년이 주인인 지역 사회

■ 이정순 | 광명시 청소년문화의집 간사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의 주역 청소년! 하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생각해 본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입시위주의 교육만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청소년들에게 공부만 강조했던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1년에서 길게는 15년이 지나면 곧바로 성인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청소년이 주체적인 한 사람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정서적으로 예민하여 작은 일에도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사회 환경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잠재력을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적인 비중이다.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다소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청소년계층은 전체 계층에서 25%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로 생각할 수 없지만 한 인격체로 사회를 위해 활동해 나가는 주체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역할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주목해야하며, 청소년 관련 의제를 청소년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작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의제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청소년의제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기관들이 함께 청소년의제가 무엇인지, 지도자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청소년의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청소년의제를 이끌어 갈 청소년준비위원이 구성된 상태이다. 청소년준비위원은 청소년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명시 청소년과 관련된 문화, 여가, 환경, 인권, 복지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올 2004년도 계획은 1월 중에 파트너십과 분과구성을 위한 청소년의제준비위원회 워크숍 계획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각 분과별 활동 및 과제에 대한 논의 후 하계 워크숍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분과활동을 계획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6개월 후 광명시 청소년들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지금 현재는 광명시 청소년들 전체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의제를 단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청소년 의제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인인 지역사회, 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 이런 지역사회야 말로 미래사회가 지향해야할 지역사회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우리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으면 한다.

광명문화원 제5대 원장에 현 안수남 부원장 선출
원장 임기 2년 중임으로 개정



광명문화원은 2004년 1월 9일(금) 오후 12시 철산동 만추부페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갖고 제5대 원장에 안수남 현 부원장을 선출했다.

광명문화원은 이날 안수남 신임 원장을 선출하고, 3명의 부원장,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등 차기 임원진을 선임하고, 4명의 고문과 7명의 운영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고문에는 정원조(광명문화원 원장), 백재현(광명시장), 전재희(국회의원), 남궁진(전 문화관광부 장관)등이 추대 됐고, 부원장에는 윤철(청소년문화의집관장), 곽향숙(곽스어학원장), 조상욱((주)포세이돈하우스 대표)등이 이사에는 최태천(모범독서실 원장), 유홍무(전 한빛방송회장), 김경표(전 광명시의회시의장), 이계월(주부), 이현정(변호사), 안성근(건축업), 민완기((주)하나물산 대표이사), 김양주((주)두레식품 대표이사), 김미정(메리트어학원장), 김광식(KRC넷 상무)등이 감사에는 장병환(경기매일 사장), 박준철(교육혁신위원회 특별자문위원)등이 선임됐다. 또한 운영위원으로는 김세경(시정소식지기자), 박상대(광명시청 비서실장), 서두원(무대예술가), 양철원(향토사연구위원), 임무자(시니어클럽 사무국장), 최평자(시정소식지 기자), 허기용(푸른광명21 사무국장)등이 위촉됐다.

이번 총회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명시와 광명문화원사의 신축등 앞으로 문화원의 역할에 기대가 큰 만큼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속에서 진행이 되었다. 안수남 신임원장은 "광명문화원이 앞으로 지역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문화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저 또한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말로 선출 소감을 밝혔다. 안 신임원장은 또한 회원들의 동의를 통해 차기 임원진을 추가 구성하여 이취임식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특기할 점은 그동안 4년 중임의 원장임기를 전국 최초로 2년 중임으로 개정해 지역문화를 위해 실질적인 봉사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광명문화원장 이취임식은 오는 2004년 2월 3일(화)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붉은점 아리따와 신의탈'의 못다한 이야기



■ 심평섭 | 광명문화교육연구소 ■

민요 뮤지컬! 환타지!! 우리가락!!! 물과 환경을 주제로 한다고..! 재미있을까?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공연이래요!

2003년 11월 21일 금요일 늦은 7시에 드디어 '붉은점 아리따와 신의탈' 공연이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아주었는데 대부분 어린이와 어머니들이었다. 공연을 마치고 다들 즐거운 모습으로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에서 큰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은 여느 공연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민요에 뮤지컬이라는 틀을 맞춘 것인데 사뭇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다. 발레(Ballet)의 특색 중에 하나가 발을 꼿꼿이 세워서 작품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맨 처음 누가 발을 세운다고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사랑을 받고 있다. "민요뮤지컬"이라는 장르 역시 새로운 시도였으며,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초연이 이루어진 것은 작품성이나 다양한 요소들은 차지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비단 이뿐이겠는가? 연출을 진행하고 함께 작품에 참여한 분들은 우리의 민요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들이다. 이렇다할 작품을 만들어 내기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바램과 우리 것을 지켜내며 새롭게 예술적 작품으로 승화해 나가려는 그들의 노고에 또한 박수를 보낸다.

광명문화원 어린이기자단으로 활동하는 윤희수(광성초 3)기자는 장구, 북, 징의 장단에 맞추어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나갔다고 즐거워하면서도, 줄거리 내용의 끝을 보지 못해서 아쉬워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민회관이 전문적인 문화예술회관이 아닌데다가 제한된 시간안에 작품을 맞춰야 하니 다소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공연중 조금은 특이 했던 것은 신의 탈을 쓰고 무대가 아닌 관람객에게 까지 이동하여 같이 호흡을 맞추는 연기였다. 한 어린이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놀라서 엄마 품에 안기는가 하면 호기심에 탈을 만져보려고 하는 관객도 있었다. 사뭇 마당극의 한 형태를 연상하게 하기도 했다.

이런 다양함속에서 아직은 완전히 영글지 않은 작품이기에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로미오는 보았는데 줄리엣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은 영국의 극작가인 W.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혹 이번 작품이 성공하여 영국에서 '붉은점 아리따'는 보았는데 '신의탈'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라는 조크가 유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재까지는 광명을 비롯해서 경기도 지역에 4회의 공연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를 소망해 본다. 지금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의 것을 잘 다듬고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문화로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비단 공연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연에 함께 하며 즐거워 해주는 관객들의 사랑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붉은점 아리따와 신의탈'이라는 공연을 통해서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문화라는 단어안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담아내는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직업특강 '직업길라잡이'



■ 이은경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기획 부장 ■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과 공부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공부를 잘해야 일류 대학에 진학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돈과 권력(?)에 접근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명한 방법으로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기본 습관과 적성을 고려하여 일에 대한 능력 함양 및 직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먼 장래를 내다보며 자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직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의 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자신과 사회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직업특강 '직업길라잡이'를 마련하였다.

이상의 기획의도와 목적아래 시작된 직업특강을 살짝 엿보도록 하자.

광명문화원 사무국장이며 시사만화가인 신지식인 이종락 국장을 모시고 12월 17일 하안중학교를 시작으로 18일 가림중학교, 26일 광명북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 및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심어 줄 수 있는 열강이 시작되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직업특강...

강사선생님의 질문에 솔직한 답변으로 친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여 간혹 곤히 잠을 청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강의에 열중케 하는 모습..

뒤쪽에선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녹화하느라 바쁜 모습..

미래의 직업에 대해 이미 정해놓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멘트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 급하게 마무리 정리해주는 강사 선생님의 등 뒤로 아쉬워하며 흘러나오는 탄성... 만화를 그려가며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설명하는 강사 선생님의 강의에 어느 순간엔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였다. 그리고 모두들 직업특강의 이 순간만큼은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시작은 왁자지껄, 마지막은 화기애해하게 끝난 직업특강..

다음 기회에는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까지 두루두루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에 대해 한번쯤 신중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 미래의 희망이며 나라의 기둥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적성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끝으로 2003 청소년직업특강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자원봉사 스쿨

■ 이정순 |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간사 ■

자원봉사 스쿨을 맡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처음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에 입사해서 제 3회 청소년자원봉사스쿨을 진행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 일인데 벌써 제 4회 청소년자원봉사 스쿨을 마쳤다.

청소년자원봉사스쿨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에게 단순 노동봉사활동이 아닌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자원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고, 청소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을 청소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으나, 청소년들이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라기 보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봉사활동이 가져오는 결과 그 자체보다는 활동의 과정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배우게 되는 교육적 결과가 더 큰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은 학교생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폭 넓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학습이라는 말도 여기에 기인하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그 필요성이 있다.

가. 개인적 필요성

인간존중 정신과 태도 형성, 사회성 개발, 자신감과 지도력 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 형성, 보람있는 여가생활, 진로 선택에 도움 등

나. 교육적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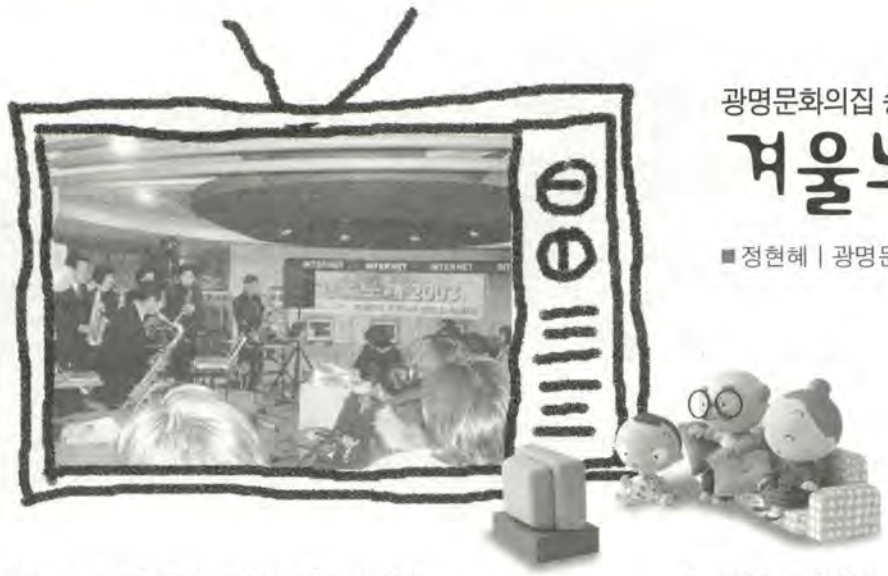
지역사회의 폭 넓은 이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 증진, 체험중심의 교육 등

다. 사회적 필요성

지역사회문제를 청소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지역사회의 문제를 담당할 자원으로 성장 등.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국제적인 봉사활동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봉사활동거리는 크게 일손돕기, 위문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 지도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등으로 나뉘는데,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3회 자원봉사스쿨에서는 지도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을 조사하였으며, 제 4회 자원봉사스쿨은 1일과 2일차에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이해, 비디오시청, 인간관계훈련, 자원봉사 OX퀴즈, 자원봉사퍼즐게임, 마인드맵핑, 자원봉사 사행시 짓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3일차에는 위문활동을 통해 광명시에 위치한 경로당 14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원봉사스쿨을 통해서 차후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광명문화의집 송년음악회

겨울노래 '2003

■ 정현혜 | 광명문화의집 ■

벌써 올해로 광명문화의집이 5돌을 맞았다.

99년 2월 개관이후 광명5동에 터를 잡아 활동해오면서 전 세대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그 역할을 묵묵히 해왔다.

2003년 12월 26일 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광명5동 170번지에 작은 분주함이 있었으니 바로 광명문화의집 송년음악회 겨울노래 '2003 때문이다.

송년음악회 겨울노래 '2003은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는 의미의 송년음악회로 매달 열렸던 작은음악회의 연장선상이기도 하였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요즘 내 이웃의 작은 몸짓과 인사는 얼마나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지 모른다.

음악회의 장소적인 문제를 깨고 과감히 문화의집 메인 홀을 무대로 삼아 열렸던 이번 겨울노래' 2003은 포크가수 이지상, 손현숙을 앞세워 386세대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공연을 위해 같은 시각 3층 문화관람실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자인형극 '헨젤과그레텔' 의 공연이 함께 했다.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엄마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다.

본격적인 음악회에 앞서 영상을 통해 광명문화의집의 한해를 살펴보는 시간과 그동안 문화의집을 사랑해주었던 우수회원의 시상도 함께했다.

곧 이어진 음악회는 양천구 색소폰 실버악단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막을 열었다. 익숙한 가요와 팝으로 음악회는 무르익었고 뒤이어 여성회관 기타교실 어머님들의 연주는 같은 또래의 어머님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뒤이어 고등학생의 마술은 아마추어로써의 풋풋함과 함께 맛있는 볼거리의 시간이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실 한켠에 자리 잡은 가수 이지상씨와 손현숙씨는 화음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하안동에 살고 있다는 손현숙씨는 따뜻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었다. 뒤를 이은 이지상씨의 노래와 말은 오랜만에 사람냄새나는 진솔한 자리였다. 그렇게 음악회는 두 사람의 멋진 화음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끝으로 음악회로서는 파격적인 공간이동과 연말이라는 시기적인 이유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큰 행사였지만 우리가 쉽게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듯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체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에게 그만큼의 즐거움이 있을까? 앞으로도 문화의집은 적극적인 시도와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 생활속의 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 기회를 빌어 한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백제의 숨결을 찾아

부여답사

■ 한욱현 | 광명문화원■



12월 5일(수) 광명시민 40여명과 함께 백제의 역사와 숨결을 찾기 위해 답사에 올랐다.

우리 문화답사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부소산성이었다. 부소산성은 퇴뫼식 산성이라고 한다.

부여는 나성으로 둘러 싸여 있는데 그 안에 또 부소산성이 있어 이중으로 성을 쌓아 수도를 방어했다는게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한성에서 웅진,웅진에서 사비,이렇게 천도를 하다 보니까 경계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랬을까?

산림욕한다는 기분으로 산을 넘어 백제의 절개를 지킨 삼천궁녀가 빠져 죽었다는 슬픔을 간직한 낙화암에 도착하였다.

낙화암에서 내려다 본 경치는 유유한 강줄기와 넓은 벌판이 사이좋게 나뉘어져 있었고 웅장하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낙화암은 그리 높지도 않고 가파르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다.

과연 이 곳에서 삼천명이 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만큼 많은 수의 사람이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이 곳에서 뛰어내렸다는 뜻일 것이다.

낙화암을 뒤로 하고 고란초와 고란수로 유명한 사찰인 고란사로 갔다.

고란사의 종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삼천궁녀의 혼을 잘 위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부소산성을 나왔다.

부소산성에서 나와 맛있는 쌈밥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정림사지로 향했다.

1탑 1금당의 전통적인 백제시대 가람배치로 정림사터에는 백제 미술의 백미인 오층석탑과 고려시대 석불좌상이 남아 있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특유의 옥개석 끝을 치켜 올려서 부드러움이 느껴졌고 각도와 거리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백제시대의 부여는 배수로와 도로가 잘 계획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라고도 한다.

다시 한번 백제인들의 과학적인 치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백제의 꽃, 무령왕릉과 함께 백제사를 다시 쓰게 만든 금동대향로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정말 멋있었다.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하나...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가장 밑에는 지하세계를 나타내는 용이 향로를 받치고 있었는데 세 발은 땅에 한발은 하늘로 향해 있어 대향로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을 표현하는 몸체부분에는 연꽃무늬와 동물, 인간, 산봉우리가 있었다. 하늘,극락세계를 표현하는 최상부 뚜껑에는 천하가 태평할 때 나타난다는 봉황이 여의주인지 알인지 목에 괴고 있었다.

봉황 밑에는 도교의 5악을 나타내는 5명의 악사가 있었는데 각각 다른 형태의 악기를 들고 있었다. 악사들 뒤에는 천상의 세계와 연결을 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각기 다른 이름모를 새들이 있었다.

어려웠던 시기에도 백성들과 귀족,왕족 모두가 극락세계에서 음악과 풍류를 즐기려고 하는 백제인의 마음이 잘 표현된 작품인 것 같다.

이번 답사는 백제를 새로 볼 수 있어 정말 좋았던 것 같았다.

백제의 역사적 자료가 빈약하다고 하는데 금동대향로의 발견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있다고 한다.

더 많은 유적, 유물이 발견되어서 백제의 역사를 빛내 줬으면 한다.

光 지역문화소식

철산 1동 주민화합노래자랑

철산1동 주민자치센터(부위원장 김은숙)에서는 지난 11월29일 오후 3시부터 광명북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첫 번째 노래마당을 개최했다. 평소 숨겨왔던 수준 높은 노래솜씨와 끼를 2시간 30분 동안 마음껏 펼친 주민들은 체육관을 찾은 3백여 명의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이날 참가자들 중에서 최고상인 무궁화상은 "짝사랑을 부른 철산1동 우편취급소장 박왕규 씨가 차지하였으며 참가자 모두에게는 각종 생활용품 등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고 현장 즉석퀴즈로 다양한 경품이 많은 관람객들에게 제공되는 등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동민들의 잔치가 베풀어졌다.



수능시험 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 청소년 한마음 축제

시에서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끝마친 수험생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긴장감 해소 및 그동안의 노력을 위로하기 위하여 11월 19일 오전 10시,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9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천여 명과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DM Scool의 축하공연에 이어 각급 고등학교의 댄스와 가요팀이 출전하여 경연대회를 갖은 후 이동우 MC로 진행하는 "특집 공개방송 축하공연"이 계속되었는데 바다, 샤크라, 원투 등 인기연예인이 대거 참여하여 수능시험으로 지친 수험생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다.

희망으로 빚어낸 사랑의 언어노인요양센터 '은빛 전시회'



치매 어르신들의 둥지인 광명노인요양센터에서는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은빛전시회'를 열었다. 치매를 앓고 있어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한 어르신들이 서툰 손끝으로 빚어낸 작품들로 어르신들이 직접 씨 뿌리고 가꾸어 올 가을 수확한 고추, 가지, 호박 등의 곡물로 정감 있게 꾸며낸 작품은 많은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조 · 팥 · 옥수수 · 깨 · 수수 등의 곡물을 일일이 붙여 만든 '우리 마음은 붉은 카네이션' 과 '추억에 잠긴 해바라기' 라는 작품, 32명의 주간보호센

터어르신들이 포도방울 하나하나를 한지로 싸고 잎을 오려 붙여 완성한 커다란 '포도나무'는 마음에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자신의 손을 석고 붕대로 떠서 만든 작품, 어린 시절 소꿉놀이하던 기억을 살려 빚은 지점토 그릇들, 그리고 짚 풀로 엮은 바구니 등. 어르신들의 의지와 지도교사의 땀이 묻어있는 작품들을 전시 하였다.

제3회 광명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제3회 광명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프로그램 나레이터 서병돈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이 정기연주회는 맨 처음 여성기독합창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명이 곁들어졌다. 연세 Quartet 팀의 그리운 금강산과 헝가리안 댄스곡 등을 연주하였으며, 경민대 뮤지컬과, 연극과 학생들의 초청연주는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던 무대였다. 수화를 곁들인 고운 합창과 아리랑 동요메들리 등 이어지는 순서마다에 깃들여진 특색 있는 노래들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다.

白蘭 먹그림 전

촌스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12월 13일부터 7일간 광명시민회관전시실에선 한국미협 광명시 지부장 최백란 씨의 개인전「白蘭 먹그림」전시회가 열렸다.
수묵화에서의 먹은 채색화가 지닐 수 없는 담담한 맛과 운치를 담아내기에 좋은 자료로써 서양화의 면과 빛과 다양한 채색으로 작가의 예술혼을 담아내는 것에 비해 선과 음양으로 모든 색이 함축되어 있는 검정색 하나로 내면의 세계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또한 화면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여백을 남김으로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정신성이 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녀는 89년부터 광명미협 창립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그림에 뛰어들면서 공모전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에 영예를 안게 되었고 그룹전, 단체전 등을 넘나들며 부지런히 붓을 놓지 않고 있다는데 현재 시흥매화초등학교 교감이기도 하다.
최씨가 4년 동안 그린 50여 작품을 전시하여 좋은 호평을 받았다.

더불어 숲, "이웃과 나누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그리고 나팔꽃콘서트 진행

광명시평생학습원(원장 이병곤)은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더불어 숲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12월 19일 학습원 강당에서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청 된 성공회대 김성수 총장은 '사랑을 온 누리에'라는 강연에서 "이웃과 나누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다.
더불어 숲과 함께 시노래 동인 모임인 '나팔꽃콘서트' 팀을 초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겨울로의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 콘서트 멤버인 홍순관씨는 "동경에서 하꼬네로 넘어가는 산길에는 아주 큰 나무들이 많아 놀라웠다. 그러나 나중에 들은 바로 그 나무들은 산림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성이 된 나무들로, 그렇게 조성이 된 나머지 그 숲 안에서는 작은 나무나 꽃, 풀들이 살기 어렵게 되었다. 우쭐한 큰 나무들보다는 작은 나무들과 작고, 낮게, 느리게 살아가는 삶을 살자."며 콘서트 무대를 열었다.

그리고 잔잔하게 그리고 때로는 관객들과 어울리며, 나팔꽃 공연은 2시간여 남짓 진행이 되었다.
또 콘서트가 진행이 되기 전 자원봉사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학습원측은 평생학습원 내 어린이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광명3동 심미정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국복식문화대전 - 저고리 6백년 史

12월 1일 한국복식문화대전으로 저고리(赤古利) 600년 사가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3일까지 계속된 이 전시회는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주관인데 복식연구가 김혜순 씨의 작품으로 우리 시와 원광디지털대학간의 교육협력 협정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와 고려를 지나면서 오늘날의 치마, 바지와 함께 입어오던 우리 옷의 기본 항목인 저고리를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중요 유물을 재현한 저고리 30여 점은 관복이나 의례복이 아닌 일상복이어서 좀더 가깝게 느껴졌다. 고려시대엔 엉덩이 정도의 긴 길이와 넉넉한 매무새를 보이던 저고리가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복식에 대한 민족적인 자각으로 우리 고유한 옷의 아름다움을 안착시켜 독자적인 패션이 시작되었다 한다. 따라서 모양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허리 아래 정도였던 것이 가슴아래까지 줄어들면서 품도 줄어들고 손끝이 넘도록 길었던 소매도 팔 아래로 짧아진다. 그리고 허리부분을 대(帶)로 여미던 것을 길이의 변화로 인해 고름이나 매듭단추로 바뀌고 깃이나 소매 끝 밑단 등이 저고리 가장자리의 '선' 장식이 사라지고 목 부분에 흰 동정이 나타남으로써 현재의 저고리 형태로 전해져 왔다. 이로써 당시의 사회적인 복식 경향은 물론 만든 사람의 솜씨와 각 집안의 풍습에 따라 다양하고 아름다운 저고리의 전통을 만날 수 있었다.



제 3회 경기도 학생문예대전

중등부 명예대상에 광문중학교 3학년 곽소현 양 차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월 10일 마감한 『제 3회 경기도학생문예대전』의 대상 수상자 6명을 비롯한 금·은·동상 및 장려상 등 총 81명의 예비문학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한국 문단의 기성 작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중학교부와 고등학교부, 시, 소설, 수필 부분별로 6명의 대상 수상자를 가려내는데, 중등부에서 명예의 대상은 곽소현 양(광문중 3년, 시), 남유정 양(안양서여중 3년, 소설), 염수현 양(율전중 3년, 수필)이, 고등학교부에서는 심규상 군(의정부고 2년, 시), 최지은 양(문산여고 2년, 소설), 김준모 군(수원공고 2년, 수필)이 차지하였다. 또 금상에는 중등부에서 박미령 양(광문중 2년, 희곡)외 7명의 금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 수상 6명의 학생들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장학금으로 수여되며, 이외에도 금·은·동 상 수상자에게도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제언

살고 싶은 도시와 살기 싫은 도시



■ 이종락 | 광명문화원 사무국장 ■

광명시가 내거는 구호는 살고 싶은 도시다.
자치단체가 내거는 구호 중 가장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말해주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다.
그만큼 아직은 살기 싫은 도시의 면면을 갖고 있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지금 광명시는 살고 싶은 도시 광명의 건설을 위해 힘찬 기적소리를 울리고 있다. 올 4월이면 꿈의 고속철이라는 경부고속철 광명역사가 개통되면서 음반단지의 조성계획과 맞물려 소하동 일대가 용트림을 하고 있고, 광명6동에는 돔경륜장 건설이 진행되면서 그 일대 역시 지가상승 등 경제적 이익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 큰 변화는 소하동의 임대주택 건설과 더불어 광명시 전역에서 신발 끈을 매고 있는 재건축은 인구 50만을 목표로 전진하는 광명시의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다.
파보레건물의 증축, 크로앙스 신축, 우후죽순 솟아나는 오피스텔 건물들의 모습은 광명시를 개발도시로 명명함에 별로 손색이 없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개발의 한축에선 이러한 광명시의 변화가 과연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과 얼마나 맞아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60~70년대는 개발의 시대였다. 길을 닦고 집을 새로 지으면서 서민들의 삶의 틀은 도시형으로 변모되었고 사람들은 흙과 물을 떠나 콘크리트로 상징되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당시 시멘트 공장의 내뿜는 연기는 건설과 부의 상징이었다.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가 집중되는 도시속에서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에 공중둥지를 틀고,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면서 도시인의 삶에 자족하였다. 개발로 인한 환경의 파괴는 세인들의 관심 밖이었다.

그렇게 급속하게 도시로 몰려 살아온 산업화의 세월속에 도시는 팽창되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땅과 공기의 오염, 콘크리트의 해독성, 대량생산을 위한 항생제, 방부제, 농약, 제초제 등의 무차별 살포로 도시인들은 병든 먹거리를 통해 천천히 병들어 가고 있다.

20년 전의 광명 역시 서울에 진입못한 서민들의 거주지역으로 속된말로 서울의 "똥통"이라고 비하하는 말까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광명의 모습은 빽빽이 들어 선 고층 아파트와 상업지구 등 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어 나가고 있지만 다리 하나 건너면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한계로 연간 20%의 유동인구 발생, 높은 교육열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환경으로 베드타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부고속철 역사, 돔경륜장, 음악밸리, 임대주택 건설, 아파트 재건축 등이 인구의 유입과 이동을 불러일으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이동이 광명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곳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보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높은 인구밀도 보다는 여유로움과 쾌적한 공간을 원하고, 하늘을 가리는 고층건물보다는 낮지만 건축미가 넘치는 건물들, 문화와 예술 행사가 쉬임 없이 시민들을 찾아가고 평생학습의 구현이 실제 생활에 접목되는, 그래서 한번 이사 오면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도시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개발이 환경을 훼손하고 경제적 이득만이 횡행하면서 문화적 욕구를 억누를 때, 나눔의 삶보다 나만의 풍요로움이 판을 칠 때 시민들은 광명에서의 탈출을 꿈꾸게 될 것 이다. 집중과 팽창은 필연적으로 생존경쟁을 부추긴다. 개발과 함께 땅값이 오르고 산업과 경제, 상업의 활기가 넘치는 도시 또한 살고 싶은 도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 살고 싶은 도시에 꼭 하나 덧붙여 정녕 살고 싶은 도시라면 물질문명의 토대위에 쾌적한 환경, 문화와 예술, 교육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수반되는 그런 도시를 광명시민들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내손으로 내집 짓는 목수를 꿈꾸는

구름산자연학교 김현주선생과의 만남

김현주씨는 늘 교육현장에 있다.
공교육 현장을 거쳐 창조학교, 대안학교를 만들고
그 속에서 교육의 희망을 찾는 김현주씨를 만나보았다.

- 일시 | 2004년 1월 6일(화) 오후 1시
- 장소 | 광명문화원
- 대담 | 이종락 사무국장

★ 문)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 답) 자연학교가 방학 중이지만 늘 바쁩니다. 남양주에서 하는 교사연수에 1월 한 달 참가하고 신학기 준비하느라 몸과 마음이 바쁘네요.

★ 문) 자연학교 교사를 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 답) 오래전 문화원에서 창조학교를 하면서 대안교육의 목표를 세웠는데 프로그램상 한계를 느꼈다. 그만두고 간디학교 같은 곳에서 교육운동을 하려다 2001년 노신복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육에 대한 생각이 일치해 자연학교를 하게 됐는데 벌써 4년이 됐다.

★ 문) 방과후 학교가 아닌 초등대안학교를 하지 않은 이유라면

☆ 답) 현실적으로 힘이 딸려서 대안학교를 못했지만 (여기서 힘은 재정확보라고 한다) 방과후 아이들의 열린 교육을 위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마당으로 대안교육의 모델이되고자 한다.

★ 문) 교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 답) 아무래도 재정적인 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학교의 운영을 100% 수업료에 의존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기 힘들다.
교사교육문제 역시 우리에겐 중요한 과제인데 방학중에도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연수를 하는데 주로 발도로프교육에 관심이 많다.

★ 문) 자연학교의 교육적 목표라면

☆ **답)** 저학년일 때 학부모들은 사실 체험학습차원에서 보내지만 고학년이 됐을 때는 달라진다. 교육적 목표라면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는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생활, 특히 방과 후의 생활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지식교육에서 탈피하는 전체적인 생활을 기획하고 체험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각의 확장교육이 중요해 자연체험과 교육예술 분야를 중시한다.

★ 문) 교육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준다면

☆ **답)** 2003년에 7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자연학교에서 학습했다. 올해는 중학교1학년도 과정에 포함하는데 교육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자연체험은 주로 산행과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자연속의 계절감을 느끼게 하고, 교육예술분야는 수채화나 수공예 등 발도로프 교육의 체험을 주로 한다. 이사 하면서 텃밭이 없어져 새롭게 물색하는 중이고 저학년의 경우 가급적이면 만화나 TV, 비디오 등의 영상물은 보지 않도록 자제시키고 있다.

★ 문)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면

☆ **답)**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3~4년 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아니다. 길게 호흡하면서 내다 보아야 한다. 특별한 희망이나 욕심보다는 자연학교가 발전해 지역이나 주변에 교육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보람 외에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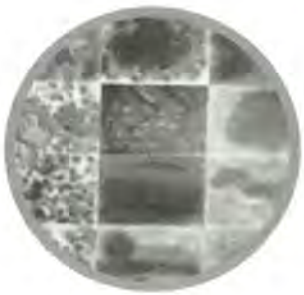
굳이 개인적인 꿈이라면 (웃으며) 사실 목수가 되고 싶다. 내 집 하나는 내손으로 짓고 싶은데 언젠가 가능하리라 본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김현주씨는 이 말을 꼭 덧붙여 달라고 주문했다.

"방과 후 학교는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 공부방은 시에서 지원해주지만 내용이 부실해 찾는 아이가 많지 않다"며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꼭 실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적 끼가 무궁하다는 김현주씨는 대안학교 교사이면서 다양한 예술활동의 전력을 갖고 있다. 수년전 광명문화원 주부연극단의 일원으로 무대에 올랐고 지역행사에 개인 퍼포먼스를 한 적도 있다. 피아노, 기타 등의 악기를 다루며 학교에선 아이들과 함께 리코더 연주에 땀을 쏟고 있는 김현주씨는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육현장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방과후 대안학교 구름산자연학교


대안교육에 대해 신문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대안교육은 19~20세기에 개발 중심의 근대적 가치가 생존경쟁의 가치, 적자생존의 가치로서 인간간의 유대를 단절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자연환경과의 친화력을 약화시키고, 인간성을 비인간화하는 교육에 대한 반기로 나타난 운동이다.

이러한 움직임 중 대안학교는 정규학교나 비정규학교에서 교육 이념 및 운영방식의 독특성을 가지고 기존의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대안적인 학교의 형태를 말한다. 즉, 지식 위주의 기존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광명시에는 대안교육을 하는 볍씨학교와 구름산자연학교 2곳이 있다.

그중 구름산 자연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구름산 자연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교육예술활동과 자연체험활동을 위주로 교육하는 대안학교이다.

교육예술활동으로는 공예와 포르멘수업, 연극, 음악활동, 시, 동화, 차나눔 명상을 하고, 구름산 정기 산행과 요리수업을 격주로 진행하며 텃밭 가꾸기를 통한 자연체험을 통해 계절감을 느끼는 활동을 하고 있다.

12월 13일 구름산자연학교 발표회를 열었다.

리코더 발표회에서는 2,3학년 학생들의 왼손으로만 연주하는 비교적 쉬운 곡을 시작으로 4,5,6학년의 '가을길' '할아버지 시계'등과 같은 곡으로 이어졌다. 앵콜을 받은 4,5,6학년 들은 대장금 주제곡을 연주하였으며 영어노래부르기, 태견 시범등 아이들의 1년동안의 활동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50여명의 아이들이 자연학교에서 생활해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각 학년 담임교사와 영역별교사 5명의 선생님이 함께 하고 있다. 방과후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간식은 유기농 먹거리로 하고 있으며, 구름산 산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고 있다.

"두루미 서식처로 학교를 옮겨 아이들과 매일 지역 나들이를 합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새학기 준비를 위한 연수에 들어 갑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들 대상으로는 수학캠프를 합니다. 3박 4일 간의 겨울 산기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으로 갑니다. 내년에 더 의미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인 셈이죠."

노신복 교장 선생님의 말처럼 구름산 자연학교는 더 좋은 대안교육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교육의 장으로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된다.

■ 이종락 ■



반작



■ 권효선 | 광명문화의집 ■

「반작」!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반작!! 상업적이고 물질만능적인 것을 반(反)하고 문학지향적인 순수 작품을 써보자(作).!!

방송대 광명학습원의 학과 동아리 모임으로 발족하였지만 현재 각 지역의 온라인회원 5여명, 오프라인회원 6~7여명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둥지를 틀고 활동하고 있다. 1998년 5월 5일, 물리적, 상업적인 것을 반대하고 순수한 문학을 창작하자는 의미의 「반작」은 사라져가는 순수한 문학을 재탄생시켜 널리 확산시키고 유지하자는 의지로 결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이다. 중도에 퇴폐되고 사라지지 않게 순수문학을 보유하고 유지하자는 것이다.



홀로 문학 활동을 하면 외로운 법!! 이를 보완하고 더 넓은 시야를 바라보기 위해 만든 동인회 모임이다. 월 1회에서 4회까지의 모임을 통해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격려해주면서 더 넓고 깊은 순수 문학적 사고와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15년간의 문학 활동을 통해서 89년부터 발간한 시집이 2003년까지 17권을 발행하였고 2002년부터 꾸준한 시화전을 개최하고 있다.

매 년 발간하는 「반작」시집은 매회 80여편 정도 수록하고 있으며 순수시에서부터 줄거리가 존재하는 소설시까지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



고 장르도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시를 수록한 시집은 여러 형태의 광명문화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접하고 있다.

반작은 광명에서 뿌리를 내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반작의 2003년도 회장이신 최지윤 선생님은 그 외에도 문인협회 지부장 등 폭넓은 문학활동을 광명에서 하고 계셨다. 또한 반작이 문화원과 연계된 계기는 문화원 동아리방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였으며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와 접목하여 시화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최지윤 전 회장님은 '반작이 순수문학에 대한 기틀을 15년 동안 일궈왔다. 이제는 순수문학을 시민들에게 표현하고 표출하려는 시도를 가져야 할 시기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덧붙여서 내부적으로는 재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15년 동안의 기틀을 토대로 순수문학에 대한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또한 나아가 광명지역활동을 토대로 「반작」이 순수문학 분야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반작」! 남모르게 광명에 뿌리를 내리고 기틀을 마련한지 15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이제는 광명에서 순수문학을 표현하고 여러 방면으로 보급하며 순수문학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라 믿으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발로 뛰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지켜봐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2004년!!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자.

물리적, 상업적인 것을 반대하고 순수한 문학을 창작하자는 의미의 반작!
사라져가는 순수한 문학을 재탄생시켜 널리 확산시키고 유지하자는 의지로 결성하게 되었다.

대중매체속의 이미지 문화



■ 서두원 ■

* czech praha Academy (D.A.M.U) 무대미술 수학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학 석사
* Brno 세계그래픽 비엔날레 참가
* Praha 세계무대미술 꽈뜨리엔날레(PQ99)학생부문참가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주요 문화 흐름을 주도했던 시각예술은 유럽사회의 가장 부강하였던 군주, 왕가, 귀족, 상인, 국가 또는 시의회등과 같은 개인 및 집단, 제도 등의 실질적 후원으로 융성한 건축, 회화, 조각 등이다.

산업화의 도래 이후 사회과학자들은 '민중'이라는 개념보다는 '대중'이라는 개념, 즉 대중사회니 대중매체, 대중문화라는 개념을 더욱 선호하고 있으며, 지난날과는 달리 오늘날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순수예술이 아니라 대중매체이다.

'매스미디어' 즉, 대중매체라는 용어는 방대한 규모의 문화 소비자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전문화된 문화 생산자 사이를 중개하는 문화 분배 및 소통의 현대적 체제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대중매체로는 사진술, 영화, 라디오, TV, 신문, 광고, 만화, 잡지 그리고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들 수가 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인쇄술의 발명이 곧 대중매체 시대의 출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십만 익명의 개인들이 강력한 대중매체의 현란한 방사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상황은 거의 금세기에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며, 각 대중매체의 공통적 특징은 정보를 기록하고 보급하며 복제하는 기술적 장치의 사용이다.

대중매체는 값싸고 풍부하며 폭넓은 유용성을 갖는 동시에 신속히 보급되는 문화적 산물을 가능케 하였으므로, 기존 정보의 전달을 담당하는 매개물이자 회로가 된 이래, 그것은 모든 수준의 문화의 사례들을 고급, 저속, 중간적인 것을 가릴 것 없이 중개 할 수 있었으나 그 문화적 내용은 '저속한 매개물'의 성격이 현저하다.

폭넓은 다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시되는 공통분모는 저속한 취미이기가 십상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불가분한 전제 조건으로 채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급문화나 순수예술은 보통 대중문화의 반대급부로서 '소수집단'의 문화개념으로 간주된다.
말뜻 그대로는 한 사회속의 소수집단을 지칭하는 것일지는 모르나 문화적으로 교육받고, 선택된 엘리트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소수 집단문화가 대중매체에서 제외되는 법은 없다.(TV 프로그램이 오페라, 고전음악 연주회 실황, 예술 다큐멘터리, 문예영화들과 같은 고급문화 방영시간을 보유하고 있고 라디오 방송망은 문화적 수준차에 따라 채널이 분화 되어있다.)
소수집단의 취미와 관심거리들이 제공되는 것은 매우 제한된 범위지만, 그것을 관습적 틀에 맞추어 관례화된 유형으로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대중매체는 기존의 문화적 구분과 계층구조를 재연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시킨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산업사회로 이행해 온 지역일수록 대중매체는 더욱 인간 의식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들은 극도로 고립된 몇몇 개인들뿐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영향권 밖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몇몇 개인들이 문화적 발전과 재생산에 이어 주요한 동력이며,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이유를 들어 대중매체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중매체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증식시키며 따라서 그 힘은 보수적이며 반동적이라는 것이다.
즉, 대중의 수동성과 무관심을 조장하고 이기주의와 사적 이해관계를 동반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적 통제라는 동기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극소수 사람들의 손아귀에 그 힘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중매체와 관련된 문화는 저질적 속성, 얼빠진 것, 도피주의적인 것, 표준화되고 상투화된 것, 순응주의적이며 천박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중문화는 '인민의 아편'으로, 노동계층이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상 업무에 대비하는 여가를 때우도록 전용되거나 조작된 수단이며, 더 나아가서는 실업의 보상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중매체의 산물들이 전적으로 저속성을 띠는 것만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상당한 부당함과 문제거리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논의되기도 하고, 재현되기도 하며 오늘날의 사회구조에 대한 예리한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에 많은 진실이 담긴 것도, 동시에 너무 일면적인 단순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같은 비난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깊이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모든 대중매체의 산물들은 기존의 문화적 수준이나 정치적 의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는 대상 집단들, 또는 전체 사회 속에서의 어떠어떠한 특정 집단들을 지향하거나 재단해낸 것이라 주장 해 볼 수 있다.
이같이 불가분한 속성들에도 불구하고 '대중'이라는 용어는 단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규모의 측면만을 생각할 경우 유용하게 쓰여 질 수 도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대중매체가 문화를 지배하는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수없이 많은 이미지 문화에 대하여 예술가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에 대한 예술이 선택한 일련의 실천은, 예술이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방식을 지시하고 요구하고 있는 지금, 혼란스럽고 골치 아파 보이는 대중매체속의 이미지 문화의 문제거리를 우리는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풀이해야 할 것이다.



문화도시의 가능성...
철산동 문화를 통해 그 현주소를 읽는다

철산1동, 사성공원을 문화자원으로...철산2동, 청소년둥지 축제 및 벚꽃축제 활성화해야
철산3동, 문화교육 일번지..시민회관 전문화,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과제, 문화원 및 평생학습원 등
문화시설 활성화...철산4동, 아파트마을만들기 주목...어린이도서관 신선

■ 강찬호 | 광명시민신문kmtimes.net 기자 ■

<철산1동 문화를 말한다.>
"사성공원을 문화 생산의 거점으로 만들자."

철산1동은 2003년 10월 31일 기준. 4,107세대 12,891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동이다. 상습 수해지역, 낙후지역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재건축사업 등으로 동 모양이 바뀌고 있다. 442세대가 들어서는 제일아파트 재건축 사업,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는 900세대 규모의 사성마을주택재개발 사업, 그리고 철산1동과 구일역을 연결하는 가교 설치 사업 등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문화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철산1동의 경우도 특징적인 동 문화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기존 주거지역이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서, 기존 주민들이 간직하고 있던 향토애나 소속감이 줄어들고,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새롭게 주거문화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타가 협력하여 올해 '제1회 철산1동 주민노래자랑' 행사를 만들어 가는 시도가 눈에 띄는 정도다. 장소는 광명북고등학교 강당을 이용했다. 주민자치센타가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눈에 띄는 지점이지만, 여전히 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주민자치위원과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한 것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으로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동 문화를 형성함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때, 주민자치센타가 자기역할을 찾는 구조로 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 문화를 활성화기 위한 동 문화 기획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철산1동은 동사무소 정면에 유수지를 활용한 주민체육공원 시설인 '사성공원'이 존재하는 것은 주요한 문화자원으로 파악된다. 이곳에는 인라인스케이팅, 농구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이 눈에 띈다. 또한 그 면적이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어 바자회나 마을축제 등 다양한 주민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주민들의 의지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문화주체의 힘이다. 2003년 진행된 주민노래자랑처럼 인근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 또한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지리적 여건과 관련해서는 삼각주 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아파트형 공장도 들어서 있다. 지리적으로 독립돼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삼각주 마을을 끼고 안양천과 목감천이 만나기도 한다. 삼각주 마을만의 공동체문화 마을 만들기 등이 이

루어진다면, 동 문화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천변의 동과 마찬가지로, 철산1동 역시 안양천 살리기 등 안양천을 활용한 문화적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다.

<철산2동 문화를 말한다.> "벚꽃축제 활성화" "청소년 둥지 축제, 마을 축제로 발전시켜야"

철산2동은 주택가와 공동주택(아파트)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2003년 10월 31일 기준 7,688세대 21,048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동 문화 형성을 위한 기초단위는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동이나 주민자치센타가 될 것으로 보이나, 특징적인 활동을 찾기는 어렵다. 이와는 별도로 현충탑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 공원을 통해 시민들의 운동 및 휴식을 즐기고 있다.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지원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침기공체조를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파악이 된다.

한편 철산2동에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부설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인 '청소년둥지'가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복지관의 경우 그 이용 시민이 철산2동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간을 이용하여 시민들은 복지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한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의 활동 참여를 위한 어르신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 역시 눈여겨 볼 지점이다. 아울러 이 복지관이 지역 교회와 경로당을 연결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측면 역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여 진다.

문화활동 측면에서 청소년둥지 개관을 기념하면서 매년 시행하는 청소년둥지 축제가 눈여겨 볼만하다. 아직은 동 단위 마을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한 경우라고 보기는 이르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도로 보여 진다. 이 축제 행사를 들여다보면 크게 두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나는 지역주민노래자랑 프로그램이다.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장기자랑 등 끼를 펼치는 무대가 이어진다. 청소년둥지를 이용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를 한다. 이외에도 바자회나 복지관 회원들이 펼치는 먹거리 장터, 전시회 등이 함께 진행이 된다. 장소는 복지관 옆 현충공원 체육공원에서 진행이 된다. 평상시에는 운동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복지관 마을축제의 장으로 제공이 되기도 하는 공간인 것이다.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복지관 자체의 기획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 동 단위 문화를 사고하면서 포괄적으로 동 문화 기획을 통해 마을축제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둥지 축제가 주민과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확장이 되어 간다면, 이는 명실공히 철산2동 마을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동이나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들 그리고 이러한 동 문화 기획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동 문화 활성화를 위해 참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러한 주체들의 접근 노력이 수반이 된다면, 철산2동은 현충탑 공원과 인근 복지관 시설, 그리고 어린이공원 등의 공간을 이용한 주민축제의 가능성을 보다 넓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과 인력의 측면에서는 철산복지관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획에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해 보인다.

또 하나 철산2동에서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축제가 매년 5월경에 진행이 되는 벚꽃축제다. 이는 철산 9단지, 10단지 진입로 가로수 길에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면, 이곳은 자연스레 볼거리를 형성한다. 철산3동과 연계되어 이어지는 이 가로수 길은

이 시기면 걷고 싶은 거리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동에서도 이 거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매력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즐기며 벚꽃 거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는 것은 동의 과제다. 안양천변과 더불어 생활권 구역 도로로서 이 거리가 주민들의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지는 것 또한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철산3동 문화를 말한다.>
"문화, 교육, 행정의 일번지...시민회관 변모해야...
평생학습원 시민문화 기여.. 길 잃은 문화의 거리 방안은?

철산3동은 광명의 중심동이다. 행정의 중심지이고,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다. 아울러 상업기능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철산3동의 문화적 특성을 개별적인 동 차원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적 특성을 찾을 수 있는 시설과 내용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2003년 10월 31일 기준 12,546세대 37,152명이 거주하고 있다.

먼저 광명시청과 시의회 청사가 이 동에 위치하고 있다. 또 시민회관이 있다. 광명시에서는 가장 크며, 유일한 공연시설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 문화예술 공연 시설로서의 '문예회관' 성격이기보다는 이러한 기능 일부와 다양한 시민행사가 가능한 형태를 겸하고 있어, 보다 품격 있고 전문화된 문예시설에 대한 요구에는 아직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회관의 경우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영화상영, 음악공연, 연극공연 그리고 대중강연이나 지역단체(기관)의 대관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방식도 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 기획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근거한 공간 운영의 요구가 문화운동 진영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과제 중에 하나이지만, 이러한 요구를 담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회관 운영의 현황이나 바람직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보다 수준이 높고, 질 높은 공연문화를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일차적으로 담아내는 공간은 바로 시민회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회관이 대관의 수준을 넘어, 문화기획력을 높여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행정이 문화행정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문화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지의 과제, 그 시발점이 시민회관의 운영 내용이 될 것 같다. 시민회관 부속 전시실의 경우도 맥락은 같아 보인다. 자체적인 기획전시를 가지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전문 인력의 부재와 지원 예산의 부족이다. 대관 전시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산3동에 위치한 또 하나의 문화기관이자 주체가 광명문화원과 광명예총이다. 이 두 기관은 현재 시민회관 2층과 3층에 들어서 있다. 시민회관과 마찬가지로 이 두 기관의 활동범위는 철산3동만이 아닌, 광명시 전역이다. 광명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사회 비영리특수법인이다. 지역향토문화를 전승, 보존, 개발하고, 지역축제를 진행한다. 문화교육 등 문화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다. 지역문화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지역문화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진다. 광명문화원은 현재 광명문화의집과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오리이원익기념관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매년 5월에 향토위인인 오리 이원익 대감을 기념하는 오리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의 주요 문화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인력들이 참여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롭게 문화원사가 하안동에 건립 중에 있다. 일정규모를 갖추고, 전문소공연장 시설을 갖추게 되어 시설을 기반으로 한 문화원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예총(예술인총연합회)의 경우, 광명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단체다. 광명미술협회, 광명연극협회, 광명음악협회, 광명사진협회, 광명문인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소속이 되어 부문별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한다.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전시회를 가지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기 발표회 등을 가지기도 한다. 이들의 한해 활동이 결집되는 것은 매년 10월이다. 지역축제인 구름산예술제가 그것이다. 각 분야별 프로그램이 펼쳐지기도 하고, 기획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축제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광명예총과 별도로 보다 민족적이고 진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예총(민족예술인총연합회)의 경우는 광명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화적 지역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 중심기관이나 시설의 측면 외에도 철산3동에는 문화의거리가 존재한다. 위치는 철산3동 상업지구다. 문화의 거리에 주목하는 것은 이 문화 아이템이 문화행정의 현 주소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문화시설이 특정 위치에 설치되고, 그것이 운영이 되는 것은 행정적 측면에서는 문화행정의 전략적 접근의 산물이라고 보여 진다. 철산상업지구는 광명시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가진 곳이다. 그런 만큼 '행정수요'의 매력을 가진 곳이다. 문화의 거리 역시 이러한 요인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시는 이곳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조형물 등 예술 작품을 설치한 바 있다. 그리고 간간이 이곳에서 문화 관련 행사들이 진행되곤 한다. 그러나 이곳을 문화의 거리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곳은 많은 유동인구만큼이나 전형적인 상업지역에, 소비지역이다. 문화의 거리를 통해 시민들이 얻고 누리고자 하는 기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 지에 대한 보다 원칙적인 접근이 부재했던 것은 아닌지의 아쉬움이 있다. 또한 설치가 되었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또 광명문화의 거리만의 특색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문화의 거리는 갈 곳을 잃은 듯 보인다.



한편 눈에 띄는 것은 광명시평생학습원의 존재이다. 광명시평생학습원은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광명시에서, 이러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설로 설치를 하였다. 평생교육과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평생학습원이 학습공간과 문화공간 기능의 역할을 일정 수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통

한 어린이 독서문화 증진,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한 전시 기능 수행, 2층 공연장을 이용한 공연무대, 찾아가는 지하철 예술무대 등이 이러한 맥락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교육 지원과 지지 활동은 새로운 시민문화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기대된다. 또 평생학습원이 주최가 되어 진행하는 평생학습축제 역시 새로운 지역축제의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그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때 이른 면이 있지만,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였고, 그러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토대로 한 시민문화 역량을 축적하는 매개는 '평생학습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철산3동의 경우 안양천과 관련된 접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안양천 가로수 길과 고수부지는 광명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휴식과 운동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는 꽃길 조성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안양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고,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어 또 다른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도 한다. 안양천이 시민들의 여가문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안양천을 보다 친숙하고, 문화적인 환경으로 가꾸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걷고 싶은 거리로의 조성, 안양천 축제, 안양천 걷기 등 관련 체육놀이 행사, 안양천 문화의 거리, 안양천 상설 공연무대 설치 및 공연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철산상업지구의 상업문화, 청소년 보호, 유흥숙박 시설의 난립, 소비문화 등이 그것이다. 상업지구의 무분별한 확산은 유흥소비도시로의 도시이미지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 특색 있는 상업지구의 설정은 자본의 흐름상 공허한 상상일까. 그것을 위한 상인들의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일까?

한편 현재 음반유통회사 임시 부지로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철산12단지 공터에 시의 계획대로 청소년시설을 갖춘 도서관이 향후 들어서게 된다면, 이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교육문화 환경을 확보하는 데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산4동 문화를 말한다.>
"도덕파크 마을 만들기 눈여겨 볼만…
어린이넝쿨 도서관 의미 많아"

철산4동은 도덕산 자락을 타고 올라 형성된 마을이다. 전형적인 구주택들이 많다. 도덕파크타운이 들어서면서 동의 모양이 점차 변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업이 일정 기간 완료되면 이 지역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아파트 중심의 동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산을 아파트들이 둘러쌓고 있는 형태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고도제한을 받지 않아, 도덕산 전망을 가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형적인 구시가지 모습에, 서민들의 주거 공간 형태를 띠고 있어, 이곳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이다. 따라서 동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집단은 부재해 보인다. 2003년 10월 31일 기준 5,487세대, 14,669명이 거주한다.

반면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주민운동을 펼쳐 온 광명만남의집과 도덕파크타운 자치부녀회가 함께 아파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최근에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이들은 함께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야외영화 상영을 2년째 진행을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유치하기도 하였다.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지원을 받아 주민들이 재활용쓰레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을 통해 녹색아파트 만들기 사업도 진행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접근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지속성을 담을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주민 공동체 문화 형성의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로 해석이 된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차원에서 이러한 모색과 시도는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 보인다. 아파트 단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문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가 이 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철산4동 산동네 마을에 들어선 어린이 넝쿨 도서관의 존재다. 지역의 작은 교회인 한울림 교회 공간을 이용, 이 곳을 지역 어린이들의 도서관으로 만든 것이다. 광명YMCA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를 제안하고, 스스로 자원봉사자로 나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문화 확대, 주부들의 참여 문화 고취,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평생학습원의 학습 지원 등은 이러한 공간의 존재 의미를 찾게 한다.

이외에 잠재적인 요인과 지리적 자원의 측면에서 철산4동은 도덕산 배후 동이라는 것이다. 도덕산이 도시자연공원으로서 본격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 대한 지리근접적인 측면의 수혜는 철산4동 주민이 우선 받게 된다. 도덕산과 향후 도덕산 자연공원을 자원으로 한 문화적 기획이 제안될 수도 있겠다.

한편 이러한 긍정의 흐름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과밀과 교통체증의 문제는 여전히 도시문제로 대두되어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광명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철산4동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안전의 문제는 구도로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철산동 문화종합>
문화도시 일번지... 다양한 문화기획 실행해야...

철산동은 철산3동이 광명시의 중심이 되고 있다. 광명시 문화생산자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편중 현상이지만, 주요한 문화생산 기관이나 단체가 이곳에 있어, 지역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고 교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동 문화에 색깔을 입히는 문제, 동 문화 기획의 주체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여러 문화주체들을 중심으로 양산되는 문화 프로그램의 문제들에 대해 시민문화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에 맞는 전달체계를 수립하는 문제 등이 문화행정과 함께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일년에 3~4개로 늘어난 지역축제의 조정 역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과제로 보인다. 특성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하는 문제가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문화관련 단체에게 나눠주기식 보다는 통합하면서 대표 축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동 문화가 그 자리를 확보해가면 된다. 지역의 중심이 변동되지 않는 한 철산동은 광명시의 중심이고, 중심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다. 시민회관의 전문화 방안, 평생학습원의 지속적인 시민문화 형성, 문화원과 예총의 지역문화 기획, 문화의 거리 활성화, 안양천 거리문화 만들기, 그리고 각 동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하동의 마을

40동, 70동 마을 그리고 설월리, 영당말

■ 양철원 | 광명문화원향토사료조사위원 ■

소하동에는 특이한 이름의 마을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

분명 근대에 붙은 이름임이 분명한 40, 70동 마을과 옛날부터 불려진 설월리(또는 서러리) 영당말이 그곳이다.

먼저 40동 마을은 서면 초등학교 뒤 쪽 벌판에 있는 마을로 1960년대 말 본래 밤나무가 많았던 곳에 건축업자가 보급형 가옥을 지으면서부터 형성되었다고 한다. 40동의 의미는 그 때 지어진 집이 총 40동의 건물이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70동 마을은 52사단 군부대 입구에서 안양방면으로 약 500M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마을 동쪽으로 성재산(또는 성채산)을 등지고 비슷한 모양의 주택이 70동이 세워져 붙여진 이름이다. 1970년에 이 지역 출신인 이영기씨가 처음 입향하여 포도밭을 가꾸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며 주택은 그 후에 지어진 것이다.

이 두 마을의 동수는 그 후 30여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는 77년에 지정된 그린벨트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건물의 보수 및 신축 등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오늘날 보기에 퇴락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 인접지역으로 광명(그때는 서면 소하리)에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의 수요가 늘어 집단 주거지가 형성되었으나 몇 년 지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한 억제로 시대에 맞는 옷을 바꿔 입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었던 것이 이 마을의 현대사이다.

40, 70동 단순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 속에는 광명이라는 지역이 주체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개발 시대에 타의에 의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베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마을의 건너편에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형성된 마을인 설월리, 영당말이 있다.

설월리는 이 지역출신 위인인 오리 이원익이 관직에서 물러나 영당말에 살면서 이곳에서 호미로 농사를 지었다하여 호미 서(鋤)자를 따서 서월리라 하다가 변음 되었다는 설과 이원익이 눈 오는 밤에 이곳을 걸으며 사색에 잠기곤 했다 하여 눈 설(雪)자를 써서 설월리라 불린다는 설이 『광명시지』에 기록되어 있다. 어떤 연유였든지 오리 이원익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마을 사람들이 이 지역 출신 위인에 대한 자부심이 면면히 흘렀음을 대변해 준다.

"소하동에는 특이한 이름의 마을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
광명 현대 사회의 부침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하동의 마을 이름들....
전통에 대한 진지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찍부터 시흥군 서면 지역의 중심지로 1907년 마을 유지인 이연철씨가 운양의숙(雲陽義塾)을 만들어 교육에 힘썼으며 1911년 시흥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자 분교로 편입되었다.
이 때는 1, 2학년만을 가르치고 3학년부터는 본교로 보냈다.
1914년의 일제의 부·군·현 통합정책에 따라 시흥군 남면과 서면이 서면으로 통합되자 서면사무소가 생겼고 1927년에는 위의 분교가 서면공립보통학교로 허가를 받아 정규교과를 실시하니 명실공히 지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곳도 70년 대 이후 광명동과 철산동의 비약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그 중심 역할을 잃다가 그린벨트 정책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다. 최근 20여 년 만에 그린벨트 재조정으로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마을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 흙담과 낮은 지붕의 집들을 볼 수 있어 옛 정취가 약간은 남아 있다.

설월리에서 남쪽으로는 영당(影堂)말이 있다. 영당은 초상화를 모신 집을 뜻하며 '말'은 마을의 줄임말이다. 이곳에는 오리 이원익의 고택이 있는 곳으로 영당이 있어 이름이 붙은 것이다. 조선 전기 태종의 왕자인 익녕군 부인의 묘를 쓴 후 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설월리와 영당말의 주민들은 해마다 음력 7월 1일과 9월 1일(또는 6월과 10월이라는 설도 있음) 두 차례에 걸쳐 마을 뒤편 구름산 능선(오늘날의 현대아파트 옆)의 도당터에서 도당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도당제는 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근대화 바람으로 미신으로 치부되어 결국 없어졌고 오늘날에는 그 터마저 아파트 건설과 등산로의 확충으로 찾기 힘들게 되었다. 도당제는 50년대까지는 박수무당이 주관하여 굿의 성격이 강했다고 여겨지며 마을 사람들의 대동놀이로서의 역할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70년대의 사회분위기속에 마을대동제의 성격은 많이 축소되고 작은 주민고사로는 남아 피난민 출신의 무녀 김선화(작고)가 주관하는 도당고사로 이어졌다.
이 후 없어진 도당굿을 80년대 중반 이후 전국민속놀이경연대회의 참가작으로 만들면서 광명도당놀이로 각색하고 규모를 새롭게 키우면서 부활하는 듯 했으나 지금은 그 모습조차도 찾기 힘들다. 생활을 벗어나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연출되어진 민속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정확히 말해주는 듯하여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한다.
정신이 살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개발한 민속은 편향된 예술지상주의의 말로를 보여준 듯 하다.
광명 현대 사회의 부침의 모습을 보여주는 40동, 70동, 서러리, 영당말이 전통에 대한 진지한 해석으로부터 새롭게 발전하기를 기원해본다.



잊혀져가는 것들
겨울놀이 썰매



■ 이철수 | 전래놀이 연구가, 다송헌지기 ■

사라져 가는 것들이라 너무 아쉽다.
단순히 추억때문만이 아니라 가슴에는 온기를 마음에는 여유를 주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썰매

끙끙! 겨울강이 밤새 그렇게나 앓아 대더니만 결국은 명경알같은 얼음판을 빚어냈다. 맑은 유리얼음위에 반짝반짝 깨어지는 아침빛을 바람이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역시 겨울이 꽁꽁 얼어붙을수록 신나는 건 아이들이다. 추위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우루루 강둑을 넘은 아이들이 발뒤꿈치로 언 강의 가장자리를 톡톡 쳐보다가 다시 큰 돌멩이를 던져 얼음의 두께를 확인한다. 얼굴에 배어 나온 미소가 이내 함성으로 터지며 얼음판 위에 뒤범벅이 되어버린다.

"넌 아직도 앉은뱅이 썰매?"

"야! 네 건 발썰매, 그리고 넌 외발이."

발썰매와 외발이 누가 더 빠르며 신날까?

누구의 제안도 없이 경주가 시작된다. 외발이가 단연 일등이다. 그리고 발썰매, 역시 꼴찌는 앉아서 얼음을 지치는 앉은뱅이다.



외발이

말 그대로 발이 하나뿐이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아빠께서 귀한 톱쇠를 두 개 구해와 앉은뱅이 썰매를 만들었다. 서로 차지하려는 형제간의 다툼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 그럴 수밖에 톱쇠 썰매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일순위 썰매다. 얼음과 닿는 부분이 칼처럼 예리한 톱쇠여서 옆으로 미끄러지지도 않고 굉장한 속력을 낼 수가 있다. 소유 그 자체가 모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화가 치민 아빠가 썰매를 뺏어 마당에다 패대기를 쳤다. 그만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형제는 각각 발하나씩을 주워 들고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톱쇠를 도저히 더 구할 수 없었던 아빠는 생각다 못해 발을 하나씩 붙인 썰매를 만들었다.

"옛다, 나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이 방법 밖에는."



형제는 기이한 썰매를 하나씩 쥐고는 한숨만 쉬었다.

"그것도 썰매야?"

아이들이 야유를 했다. 그래도 형제는 매일 얼음판으로 들고 나갔다. 뒤뚱뒤뚱 엉덩이에 퍼런 멍이 들도록 넘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겨울이 훌쩍 지날 때쯤이야 얼음판 위에 '와!' 하는 함성이 터졌다. 앉은뱅이 철사 썰매에 비해 두 배나 세 배쯤 빠르며 날렵한 몸놀림으로 멋지게 얼음을 지치는 형제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생겨난 게 '외발이'다. 이후 썰매의 높이도 경쟁적으로 높이다보니 한자가 훌쩍 넘는 높이로 얼음판을 휘젓고 다니는 아이들까지 생겼다. 앉은뱅이 썰매의 침대(막대 끝에 못을 박아 얼음을 찍는 도구)는 겨우 30cm정도의 길이인데 비해 외발이 침대는 1m가 넘는다. 타는 몸짓도 요즘의 스키를 타는 폼과 아주 흡사하다. 끝에 못이 박힌 긴 침대도 하얀 눈을 지치는 스키의 폴을 닮았다.

그러나 외발이 썰매를 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길이가 20cm남짓한 한 개의 칼날 위에 곧게 서 균형을 잡아야하는 그 자체부터가 어렵다. 제대로 타려면 겨울 내내 얼음판 위에서 엉덩방아를 찧어야 한다.

* 발썰매 **********

제멋대로 까불어 대기는 뭐니 해도 발썰매다.



발썰매는 요즘의 스케이트다.

지름이 발바닥 폭(9cm) 정도 되는 통나무를 발 길이(25cm) 남짓하게 잘라 윷짝처럼 세로로 쪼갠다. 발판이 되는 쪼개진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고 뒤집어 반대쪽을 꼭 배 밑처럼 다듬는다. 그리고 굵은 철사를 세로로 길게 박아 미끄럼 날로 쓴다. 앞쪽에다 7-8개의 못을 1cm정도로 짧게 남기고 박은 후 못머리를 절단해 예리하게 마름질한다. 스케이트는 칼날로 얼음을 지치지만 발썰매는 못을 박은 발 앞꿈치로 얼음을 찍어 전진한다.

다리 힘이 약하면 옆으로 미끄러지기가 쉽다. 반복하다보면 다리의 근력이 강해지며 차츰 요령이 생기면서 스케이트처럼 갖가지 재주를 부릴 수 있다.

아이들이 물에 빠진 빨간 발을 녹이기 위해 논두렁을 태운다. 손에 들려 모락모락 연기를 피워 대는 건 마른 쇠똥이다. 쇠똥에 불을 붙여 놓으면 꼭 담배처럼 불꽃 없이 타들어 가는 데 불꽃이 필요할 땐 손에 쥔 채로 팔을 빙빙 돌리면 이내 불꽃이 인다. 당시엔 성냥이나 라이터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쇠똥으로 대신했다..

"야! 네 바지."

바지가랭이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도 정작 당사자는 모른다. 겨울 바지는 솜을 넣은 핫바지였기 때문이다. 바지를 태운 너석은 어둡살이 내린 후에야 제 집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숨어든다.

관객과 함께하는 연극을 기대하며



■ 이형직 ■

* 한국연극협회 회원
* 명지대 연극영화과 대학원 재학중
*연극교육연구소 소장

우리 연극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엔 매일 수십 편의 연극이 공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대와 배우만 존재하는 연극이 되어 가고 있다. 연극의 삼대요소라 하면 희곡, 배우, 관객인 것이다. 관객이 빠진 연극은 흥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연극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빠졌으니 연극이라고 할 수가 없다.

멀어져간 관객을 어떻게 하면 극장으로 불러 모아 같이 연극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다. 첫째로 일의 분업화다. 지금까지 연극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보면 누가 배우이고 누가 스텝인지 기획자는 누구인지 분업화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연극이 무대에 올려지곤 하였다.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덜하니 좋은 작품이 없는 실정이고 어쩌다 관객이 좀 많이 들어오는 작품이 만들어지면 그 작품을 연장 공연이라는 미명아래 재탕되어지는 공연만 만들어 지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분명한 분업화를 통하여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준다면 분명히 좋은 작품은 만들어질 수 가 있다. 그 실례로 '날 보러와요', '오페라의 유령' 같은 작품들을 보면 철저히 분업화된 상태에서 배우와 스텝들은 작품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기획을 맡은 기획자는 기획에 최선을 다한 결과 작품의 질도 좋아지고 "좋은 작품에는 관객이 몰리는 법" 수입에서도 흑자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다.



두번째로 변화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다. 연극을 보면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극들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관객으로부터 외면당하

> 멀어져간 관객을 어떻게 하면
> 극장으로 불러 모아 같이
> 연극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어린이 연극에는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관객으로 참여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 어린이들에겐 많은 볼거리와 재미를 어린이 연극이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관객들의 생활수준, 교육수준 등은 많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 왔는데 그 변화에 연극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관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한국영화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노력한 결과 2003년에는 한국영화 점유율이 47%를 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한다. 세 번째로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의 프로근성이다. 연극은 배우예술이다 그런데 그 많은 배우들이 굉장히 나태하다는 것이다. 배우는 몸이 재산인데 많은 시간을 술과 담배로 혹사키고 작품이 정해져야만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한다. 이렇게 게으름을 피워서 어떻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좋은 작품은 술자리에서 서로 언성높이며 떠들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프로근성을 가지고 피나는 연습과 노력의 결과만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네번째로 준비된 관객이다. 공연의 형태와 장르에 따라 감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많은 관객들이 작품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이 극장을 찾았다가 연극을 재미없이 관람하여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왕 공연관람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조금만 더 시간과 정성을 들여 팜플렛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작품에 대해 조금이나마 사전지식을 알고 극장을 찾는다면 공연관람의 재미를 더 많이 느끼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위에서 열거 한 것들만이라도 지켜진다면 많은 관객과 함께 하는 좋은 연극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지렛대 실험에 들어갈 차례였다. 핀처는 생쥐의 머리꼭대기에 달린 접속 단자에 전선을 연결하고 약한 전기를 흘려 보냈다. 프로이트는 깜짝 놀라서 잠시 꼼짝 않고 있더니, 흥분이 이는 듯 오른쪽 앞다리를 바르르 떨었다.

<고통을 느끼는 건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고통을 느낀다기보다 처음 경험하는 자극에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생쥐가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쥐에게 지렛대를 맡기는 거였다. 핀처는 생쥐의 다리 앞에 지렛대를 놓고 다시 전선을 연결하였다. 프로이트는 지렛대에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냄새만 맡을 뿐 건드리지는 않았다. 그러자 핀처는 지렛대를 누르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두 손가락으로 그것을 움직였다.

생쥐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잠시 꼼짝 않고 있었다. 이제 무언가를 깨달은 눈치였다.

<생쥐가 아프지 않을까?>

생쥐는 핀처의 두 손가락에서 놓여 나기가 무섭게 앞다리로 지렛대를 눌렀다. 그렇게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전기 자극을 한 번 얻고 나자, 생쥐는 즉시 지렛대를 올렸다가 다시 눌러 두 번째 자극을 받았다. 곧바로 세 번째 자극이 이어졌다.

「생쥐가 자극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핀처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생쥐는 더 이상 멈출 생각을 않고 지렛대를 열심히 올렸다 내렸다 하였다. 마치 자기만 아는 어떤 묘약을 우물에서 길어 올리느라고 펌프질을 하고 있는 듯했다.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뇌(하)』p338~339 열린책들>중에서





■ 정종해 | 민화가 ■

빛과 어둠가운데 선 만화가

그 상자 속엔 무엇이 들었을까?

세상에 나온 아이는 맨 먼저 빛을 만나게 된다. 그 빛은 자신의 경험에는 없었던 신비로운 존재며, 또한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 하지만, 아이는 빛과 어둠의 반복성을 이해하고 일상화되어갈 때 비로소 낯설게만 느껴졌던 빛에 대한 동경이 더해간다. 어둠 속에선 촉각과 청각에만 의지해야했던 아이는 드디어 시각을 더하는 그 빛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탄생하여 죽음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까지 빛을 찾아 다닌다. 어둠이 되었을 때는 다시 촉각과 청각을 다스려 깊은 잠을 자게 되고, 다시 빛이 나타나는 순간 인간은 행동(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살아가는 방식을 채득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 빛은 창조의 과정이 된다.

그렇다면 어둠은 잠자는 일 말고는 창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어둠은 보이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보이지 않기에 두려움을 제공하

고, 보이지 않기에 호기심을 자극한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무한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 상상을 잠재한다. 꿈은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광활하게 재현된다.

빛과 어둠 그 사이에는 창작하는 자가 놓여있다.

빛이 펜과 잉크와 종이, 그 위에 놓여진 창작자의 손을 통하여 완성된 예술, 혹은 결과물을 실재하게 하는가 하면, 어둠은 그들에게 최초 상상과 이야기와 논리를 만들어간다.

세상은 참으로 오묘하게 어둠과 빛을 잘 조화시켜놓았다. 상상을 해보자. 1. 길을 가다 닫혀져 있는 박스하나를 보았다고 하자. 표면에 아무런 상세 정보가 없는 그 박스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우리는 하나의 크나큰 자극을 가지게 된다. 2. 성(性)적으로 생각하자. 인간은 일반적으로 남과 여라는 이분화된 성질(性質)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추위 때문에 옷을 입다가 언젠가부터는 옷 입는 습관이 관행화되어갔다. 누구도 이제는 그들의 본체를 보기 힘들다. 그때서야 자신의 본체와는 다르게 생긴 것을 보고자하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 심지어 인간은 그들을 훔쳐보는 것에서 극도의 자극을 느꼈음을 깨닫게 된다. 바로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이다. 호기심은 학습과 창조, 개발 더 나아가 상상의 발원이 된다. 창작자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만화가들에게 특히 필요하다.

어린시절부터 입시전쟁에 갇혀 버린 아이들은 스스로 상상하는 법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탐구하는 습관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그러니 독자 역시 한국의 만화에 깊이 빠져들기가 힘들다. 때문에 만화의 창작에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탄탄한 밑그림이 하나가 될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만한 시나리오 작가와 그를 완벽히 재현해낼 수 있는 작화가가 만나도 좋다. 하지만 이 둘이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일간지 <경제신문>에서 '문학'이라는 글쓰기 장르에만 국한되었던 신춘문예에 만화라는 장르가 등장했음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만화는 이미 문학이상의 다양한 예술의 집결체였었다. 특별한 변별성만을 고집하여 구분해놓은 장르간의 세력다툼이 사라지는 일은 앞으로의 문화적인 방향에 좋은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 장담한다. 언어, 철학, 역사 등의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해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과 같은 순수 예술장르들이 한데 뭉쳐갈 때는 큰 힘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다만 현재 한국의 대학이 펼치고 있는 학부제 시스템은 그 의도는 좋았으나 충분한 고민 없이 들여오다 보니 분류상의 문제와 그 밖의 많은 충돌을 빚고 있다.) <경제신문>의 이러한 시도가 근간이 되어 만화시장의 확대와 지원에 많은 영향이 되길 바란다.

지난 한해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바이지만, 벌써부터 호기심의 문제를 귀찮아하거나 상상하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결국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 현실의 학교교육, 현실의 가정교육, 그 밖의 한국사회의 여유로움의 시스템이 부재한 까닭이 아닌가? 아이들에게 공을 던져주고, 아이들에게 잠자리, 미꾸라지, 개구리를 잡게 하는 여유로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라온 지금의 20대 혹은 30대의 만화가를 꿈꾸는 청년(본인을 비롯하여)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겐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다.(그렇다고 20, 30대의 이들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어차피 그 세계에 발을 두었기에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 현실적 불안과 불만에서 싸워나가는 과제를 하나 더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미래의 한국 만화가가 될 아이들에게 과연 저 상자 속엔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깊이 생각할 여유를 줄 수 있길 바란다.

2004년도 이달의 문화인물

문화관광부는 「2004년도 이달의 문화인물」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2004년도 문화인물은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37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자문위원회의 추천과 인물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2명이 확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국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특히 그 동안 덜 알려 지거나 잊혀진 인물들을 발굴하여 재조명한다는 점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15년간 175인의 문화인물 선정 • • • •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위대한 문화적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하여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가 지난 '9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모두 163명의 문화인물을 선정하여 기념사업을 벌여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2004년도이달의 문화인물 12명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175명을 선정하였다.

한국문화의 발전과 정체성 확립에 공헌한 인물 12인 • • • •

2004년도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인물에 대해 탄생일, 사망일 또는 기념일 등을 감안하여 각 월별로 문화인물을 지정하였는데, 먼저 1월에는 시서화 일치를 추구하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매화그림에 발군의 역량을 보여 시서화 3절의 대가라 일컬어지는 미술가 우봉 조희룡(趙熙龍)을 선정하였다. 2월의 문화인물로는 조선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이며 문장 4대가중의 한사람인 상촌 신흠(申欽)을, 3월에는 조선말 위정척사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인 화서 이항로(李恒老)를, 4월에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경학을 크게 발전시킨 백헌 이경석(李景奭)을 선정하였다. 또한 신라시대 고승이자 화엄종의 시조로서 신라불교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어낸 의상(義湘)대사를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으며, 가사문학의 효시인 '관서별곡'을 남기는 등 가사문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기봉 백광홍(白光弘)과 조선초기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는 쌍매당 이첨(李詹)을 각각 6월과 7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8월의 문화인물은 한말 · 일제강점기에 가야금 산조의 명인으로 시나위가락에 판소리가락을 도입하여 오늘날과 같은 가야금산조의 틀을 마련한 김창조(金昌祖)를 선정하였으며, 9월에는 의병장이면서 나라의 충절심이 엿보이는 '중봉집' 등의 문집을 남긴 조선중기의 문신 중봉 조헌(趙憲)을, 10월에는 집현전의 주역으로 한글창제에 큰 공헌을 남긴 태허정 최항(崔恒)을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11월의 문화인물로는 신사실파 동인으로 동양적 철학사상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 미술가 장욱진(張旭鎭)을, 12월에는 기독교적 이상과 윤리의식을 바탕에 둔 자연과의 교감을 주된 시세계로 잡았던 청

록파 시인의 한사람인 혜산 박두진(朴斗鎭)을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내실 있는 기념사업과 적극적인 인물 재조명 추진

문화관광부는 문화인물의 기념사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인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선정된 문화인물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문화원, 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다양한 기념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귀감으로 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사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인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2004년 이달의 문화인물」 주요약력

월별	성 명	생몰연대	주 요 약 력	분야
1	조희룡 (趙熙龍)	1789~1866	• 시서화 3절의 대가라 일컬어 지며, '홍매도대련' 등 걸작품이 다수 있음	미 술
2	신 흠 (申 欽)	1566~1628	• 호는 상촌, 조선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며 문장 4대가중 한사람, 주요저서로 '상촌집'이 있음	문 학
3	이항로 (李恒老)	1792~1868	• 조선말 위정척사사상의 대표적 인물, 편찬사업을 통한 학문적 기여와 강학활동을 통한 척사의리사상의 실천	한국학
4	이경석 (李景奭)	1595~1671	• 호는 백헌, 조선중기 문신으로 경학을 크게 발전시켰고 문장과 글씨에 능하였음. 문집으로는 '백헌집' 등이 있음	한국학
5	의 상 (義 湘)	625 ~ 702	• 신라시대 고승, 화엄종의 시조, 신라불교의 사상적 배경을 이룬 고승, 당에서 화엄을 공부하여 화엄사상을 널리 유포시킴	종 교
6	백광홍 (白光弘)	1522~1556	• 문과에 급제, 조선의 8대 문장가로 가사문학의 효시인 '관서별곡'을 남기는 등 가사문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김. 주요저서로는 '기봉집' 등이 있음	문 학
7	이 첨 (李 詹)	1345~1405	•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조선초기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 저서로서 '쌍매당집', '저생전' 등이 있음	문 학
8	김창조 (金昌祖)	1856~1919	• 한말 • 일제강점기의 가야금산조의 명인, 시나위가락에 판소리가락을 도입하여 오늘날과 같은 가야금산조의 틀을 마련	음 악
9	조 헌 (趙 憲)	1544~1592	• 호는 중봉, 조선 중기의 문신 • 유학자 • 의병장. 통진현감, 공조좌랑 등 역임, 임란시 옥천에서 의병 청주성 탈환, 금산에서 전사, 영의정 추증. 저서에 '중봉집' 등이 있음	한국학
10	최 항 (崔 恒)	1409~1474	• 조선전기 문신이며 학자, 한글창제에 공헌	어 문
11	장욱진 (張旭鎭)	1917~1990	•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약, 동양적 철학사상을 담아냈다는 평을 들음. 대표작품으로는 '까치', '두 아이', '집' 등이 있음	미 술
12	박두진 (朴斗鎭)	1916~1998	• 정지용에 의해 '문장'에 추천, 조지훈, 박목월과 함께 청록파 시인의 한사람. 시집에 '해', '거미의 성좌' 등이 있음	문 학

2004년 문화관광축제 23개 선정

(2003.12.22) 문화관광부는 '금산인삼축제' 등 3개의 최우수축제를 포함하여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 23개를 선정 · 발표했다. 문화관광축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축제 가운데 '금산인삼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강진청자문화제' 등 3개 축제는 관광학과 교수, 축제관련 전문가 및 평가위원들로부터 관광상품화 가능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각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2003년도에 이어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바다 진흙인 머드를 활용한 머드슬라이딩, 갯벌극기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머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머드 화장품 등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보령머드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및 '대구약령시축제' 등 9개 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친환경적 소재인 나비를 활용하여 외래관광객 140여만 명을 유치하고 지역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함평나비축제'가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지역육성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양양송이축제', '강경젓갈축제', '광주김치축제' 등 9개 축제는 전년에 이어 2004년에도 지역육성축제로 선정되었다.

2003년도 예비축제였던 '온양문화제' 와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외래관광객유치 및 행사내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04년도에 새롭게 지역육성축제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에서는 '서울약령시축제', '인제빙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보성다향제' 등 다양한 축제가 새로이 2004년도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으며,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축제'와 '이천햅쌀축제' 등 5개 축제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예비축제로 선정되었다.

예비축제는 1~3년간의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그 성과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함으로써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축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문화관광축제 수는 동결하고 예비축제 수를 보다 확대함으로써「경쟁의 원리」와「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2004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최고 1억6천만 원에서 최저 5천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예비축제 제외)받게 되며, 문화관광부 후원명칭 사용, 축제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 국내 · 외 홍보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조직망을 통한 축제 홍보 · 마케팅 등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2003년 문화관광축제 30개(예비축제 7개 포함)를 지원한 결과, 외국인관광객 16여만 명을 포함하여 총1,610만 명의 국내 · 외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경제적 효과는 5,965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부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방문지역에서 체류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연계관광 활성화와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 개발을 유도하여 외래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는 등 문화관광축제가 세계적인 유명축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제의 지원 · 육성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 현황 ●

상반기

지정구분	축 제 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문화관광 축제 (9개)	경주 한국의술과 떡잔치	3.27~4.1	○술 • 떡전시, 제조과정시연, 떡메치기시연, 디딜방아찧기, 전통혼례 및 관례재연, 달집태우기 등
	온양 문화제 (아산시)	4.25~4.29	○거북선해전놀이, 난중일기 마당극, 무과전시재연, 한중일 군장체험, 전통대장간 체험, 헌정수 봉치식
	진도 영등축제	5월중	○영등살놀이(뗏목놀이,용왕제,바닷길영합회,뽕할머니씻김),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다시래기, 개메기체험 등
	하동 야생차축제	5월중	○대렴공 각색 마당극, 어린이 차예절경연대회, 차잎따기, 산사문화체험, 범패공연, 차만들기 등
	한산 모시문화제 (서천군)	5.1~5.6	○한산모시제, 모시길쌈체험, 모시옷 입어보기, 천연 염색체험, 모시옷패션쇼, 한산모시디자인공모전 등
	함평 나비축제	5.1~5.9	○남도노동요, 호남가 경창대회, 기산제 재연, 나비생태관 운영, 나비사랑 체험마당, 친환경농업체험장 등
	춘향제 (남원시)	5.4~5.8	○춘향제향, 국악대전, 전국시조경창대회, 춘향 그네뛰기, 창극 춘향전, 남원도예전, 국악대향연 등
	대구 약령시축제	5.8~5.12	○고유제, 제례악, 날뫼북춤, 비산농악, 한방요리전시, 약초꽃 사진전, 약썰기, 한약재 달이기 시연 등
	춘천 국제마임축제	5.26~5.30	○공식초청작품 공연, 가족을 위한 마임공연, 거리 • 방문공연, 마임캠프, 도깨비난장 등

지정구분	축 제 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예비축제 (8개)	인제 빙어축제	1.29~2.1	○전통썰매타기(외발,탄통), 팽이치기, 연날리기, 널뛰기, 빙어낚시, 스키마차타기, 빙산볼링, 스노우모빌, 이글루체험, 빙어마당극 등
	팔만대장경축제 (합천군)	4.23~4.27	○바라춤, 승무, 합천오광대공연, 팔만대장경 이운 경로 재연, 대장경 인경, 산사문화체험, 산사음악회 등
	보성 다향제	5.1~5.10	○다산제, 철쭉제례, 향토농악, 보성소리공연, 차잎 따기, 차 만들기, 차사랑 연등달기, 녹차팩 건강 미용체험, 다향의 밤, 차인의 밤 등
	전국민속투우축제 (정읍시)	5.2~5.6	○정읍사 국악단 공연, 소싸움 • 돼지싸움, 가축품평회, 승용마 시승식, 축산기자재 전시 등
	연천 구석기축제	5.3~5.5	○석기교실, 움집교실, 수렵 • 채집 • 벽화그리기, 불피우기, 주먹도끼만들기, 가족나무심기, 놀이기구, 선사체험장, 불의의식, 야간 병영체험 등
	서울 약령시축제	5.4~5.8	○한약초사진전시회, 약재썰기대회, 건강박람회, 한방체험한마당, 우수한약재전시회 등
	울산 고래축제	5.27~5.30	○고래잡이재현, 고래역사기행, 고래탐사, 고래당기기 대회, 바다그림그리기, 고래학술심포지움, 포경 전시회, 고래음악회
	지리산한방?약초 축제(산청군)	5월중	○약초그리기 • 백일장, 약재 썰기, 한약달이기, 약초 동산 운영 등

하 반 기

지정구분	축 제 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문화관광 축제 (14개)	보령 머드축제	7.16~7.22	○머드슬라이딩, 머드탕, 머드풍선, 머드왕선발대회, 셀프머드마사지체험, 머드교도소 등
	강진 청자문화제	7.31~8.6	○청자파편모자이크만들기, 청자함께만들기, 청자학술 세미나 등
	무주 반딧불축제	8.20~8.28	○반딧불이 신비탐험,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운영, 여치집만들기 등
	금산 인삼축제	9.10~9.19	○전통민속놀이, 인삼캐기체험, 인삼농가민박, 약초썰기체험, 인삼약초만들어먹기 등
	풍기 인삼축제 (영주시)	9월말	○인삼요리경연, 인삼씨앗뿌리기, 인삼캐기체험, 인삼인형극 전통농악 등
	양양 송이축제	9월말~10월초	○송이채취현장체험, 송이농가홈스테이, 전통혼례, 민속공연 등

문화관광 축제 (14개)	충주 세계무술축제	10. 1~10. 7	○국내외 무술시연, 택견무공연, 무술체험, 전통군장체험 등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10. 1~10.10	○탈춤공연, 도산별시, 차전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탈그리기, 탈만들기, 탈춤배우기 등
	진주 남강유등 축제	10. 1~10.12	○세계의 등 전시, 소망등 달기, 창작등 만들기, 수상불꽃놀이, 진주성 전투 수상영상재현 등
	난계국악축제 (영동군)	10. 2~10. 5	○전국 국악경연대회, 국악기체험, 난계 숭모제, 외국인 국악 공연대회, 난계국악단공연 등
	김제 지평선축제	10. 7~10.10	○벽골제사, 쌍용놀이, 만경들노래시연, 세계 농촌민속체험, 농촌에서의 하루 등
	부산 자갈치축제	10.13~10.17	○외국인요리경연대회, 맨손으로 활어잡기, 생선회 정량달기, 수산물깜짝경매 등
	강경 젓갈 축제 (논산시)	10.14~10.18	○젓갈김치담그기, 젓갈주먹밥, 강경포구뱃길여행, 용왕제 재현, 풍물놀이 등
	광주 김치대축제	10월중	○김치담그기 체험코너, 자연체험학습장, 민속놀이마당 등

지정구분	축 제 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예비축제 (6개)	효석 문화제 (평창군)	9월초	○메밀꽃그리기, 전통민속놀이, 유리공예, 메밀국수, 메밀음식시식회, 달맞이행사, 문학의 밤, 영화상영 등
	서귀포 칠십리축제	9.15~9.19	○제주목사순력행사재현, 바다낚시대회, 해녀태왁수영대회, 물허벅지기, 핀수영대회 등
	붕화 송이축제	9.23~9.26	○전통혼례, 오광대놀이, 송이전시, 야생버섯전시, 송이채취, 메뚜기잡기, 민속놀이, 연등타기, 자연생태체험 등
	강화 고인돌축제	10. 1~10. 3	○토기제작, 원시 불 피우기, 돌탑 쌓기, 고인돌 축조재현, 팔만대장경 판각재현, 강화도령선발, 철종 등극행렬 등
	남도음식문화큰잔치(전남 순천)	10.19~10.24	○선릉제, 남도 들노래, 북춤, 마당극, 풍물놀이, 다도 시연, 부침개 • 부꾸미 • 과채즙 경연, 남도음식전시, 국악공연 등
	이천 햅쌀축제	10월하순	○풍년 대동줄 만들기, 짚 • 풀 공예품만들기, 벼 탈곡체험, 인절미 만들기 등

겨울 그리고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국내 최고의 낚시터였던 파로호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마련한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는 2000년에 처음 개최한 화천군의 "낭천얼음축제"를 시작으로, 2003년 새로운 테마와 명칭으로 태어나 이번에 2회째를 맞이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화천의 1급수의 호수에서 열린다.
작년 산천어축제는 2만여 관광객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2만 이상이 온 성공적인 겨울축제였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 열려 관심을 모은 산천어낚시대회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으며 전국각지에서 낚시객이 몰려들어 신문·방송 등 전국언론사에서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었다.

이번 산천어축제는 겨울철 화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한 이색체험 '산천어얼음낚시'를 비롯, 갖가지 체험행사 및 볼거리가 가득한 겨울철 이색테마체험 축제를 마련하였다.
이색창작눈썰매대회, 눈조각콘테스트 등 깜짝 이벤트 참여행사와 얼음축구, 눈썰매, 인간컬링, 동물농장 등 25가지의 상설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행사구분

2003년 1월 1일~2004년 1월 31일 : 행사장 개방기간
2004년 1월9일~1월 18일 : 공식 축제기간
• **문의처** – tel : 033)441-7574~5 홈페이지 : http://www.narafestival.com/

인제 빙어 축제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지류와 내린천의 관문인 소양호에서 은빛 빙어를 주제로 펼쳐지는 빙어축제는 맑고 투명한 빙어와 눈덮힌 내설악 경관, 빙판위에서 행하여지는 산촌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인제군만의 고유한 축제이다.
인제군 남면 소양호 지역은 설악준령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수와 방태산을 감돌고 흐르는 내린천이 합수되어 형성되는 전국최대의 청정호수로서 겨울철이면 300만평의 빙판이 형성된다. 또한 이곳에서는

산란을 위하여 둥지를 찾는 빙어떼가 몰려들어 강태공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빙어는 공어, 은어, 방어, 뱅어, 병어라고 불리는 담수어종으로 6℃~10℃의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산란하는 은빛의 투명한 어류로서 우리나라에 보급된 역사는 짧지만 빙어 축제와 더불어 그 명성이 새롭게 부각되어가고 있다.
빙어축제에서는 빙어낚시대회, 빙어 시식회 등 빙어를 주제로한 행사와 빙상볼링, 전국대회 규모의 얼음축구대회, 스노우산악자전거대회 등의 레포츠 경기, 그리고 눈썰매장, 이글루와 눈조각전시 등 눈과 얼음을 주제로한 체험행사를 개최하게 되며, 수몰지역 및 주변 산촌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민속놀이 및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은빛 빙어와 겨울철 빙상레포츠가 함께 어우러져 펼쳐지는 강원 인제에서 참가자 모두는 순박한 산촌 사람들의 문화와 고향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행사구분

공식축제기간 : 2004년 1월30일~2월1일
그외의 기간(1월초부터) : 빙어낚시, 이글로 테마캠프 가능



주요행사내용



<민속시연(무료참여)>
:투호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페이스페인팅, 사물놀이, 윷놀이, 널뛰기

<눈과얼음마당(유료참여)>
: 빙어낚시대회, 가족낚시대회, 아이스서바이벌, 자치기, 눈썰매장, 봅슬레이, 스노우래프팅, 스노우모빌, 스키마차, 스노우바나나, 로데오, 시베리안허스키 대회, 빙상인간컬링, 빙상인간투원반, Rock & Roll, 빙상축구공차기, 빙상볼링

<전시이벤트>
얼음조각, 눈꽃나무, 눈사람만들기, 눈조각, 얼음터널, 얼음울타리, 얼음분수, 이글루, 빙어주제관

<부대행사>
이글로 테마캠프, 전역자 및 면회객 만남의 장 운영

• 문의처 – TEL : (033)460-2082 FAX : (033)460-2089
홈페이지 : http://www.injefestival.co.kr

아인스월드 빙등대축제 (빙등제)

대륙의 웅장함과 영롱한 빛의 향연 ! 금수강산의 겨울이 더욱 아름다워 집니다.
겨울다운 겨울이 만들어져… 우리네 겨울이 더욱 아름다워 집니다.
송화강의 얼음과 무한도전의 정신이 만든 빛의 조화, 영하 30도 혹한의 하얼빈을 인간의 힘으로 최고 겨울 축제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겨울이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얼음과 빛의 최고 향연과 중국 작가들의 사진전, 공예전, 서화전, 기예공연 등으로 채워 집니다.

행사구분

공식축제기간 : 2004년 1월12일~2월22일

빙등

빙등은 중국 북방의 독특한 예술형식의 하나이다. 재료로는 송화강에서 캐낸 큰 얼음덩어리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각용 얼음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이 얼음 덩어리로 역사적 건물, 예술품등을 설계하여 예술적 가공을 거치고 다채로운 오색등을 얼음내부에 배합한 것이 빙등이다. 건축조형을 통하여 빙등예술의 세계로 표현한 빙등은 중국 북방겨울의 특유한 경치풍경을 창조하고 있다.



등

일반적으로 등을 밝히는 것을 연등(燃燈)이라 한다. 등(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어 예로부터, 등을 공양하면 광대무변한 공덕을 얻는다고 하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으로는, 연잎을 하나씩 붙여서 만드는 연화등이나, 그마저 여유가 없을 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팔각등이나, 접이등 정도이다. 또, 등 공양의 시기도 사월 초파일에 한정되어 있는 형편으로, 서원하는 바를 마음에 새겨 자신이 손수 만들어 밝히던 등 공양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그밖의 전시

서화전 / 공예전 / 사진전

• 문의처 – TEL : 02-558-4788 FAX : 02-558-4787 홈페이지 : http://www.etoobee.com/ice/



원고모집

지역 주민의 문화마당 광명 문화저널이
2004년 13호부터 대폭 바뀝니다.
문화저널의 주인공인될
광명시민의 글을 찾습니다.

대상 : 광명시민
내용 : 칼럼, 수필, 시, 기행문 등 삶의 내용을 담은 글
문의 : 광명문화원 (2618-5800)
홈페이지 : http://www.gmcc.or.kr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다시 읽는 고전

남명 조식의 단성소(丹城疏)

조선시대 최고의 선비로 일컬어지는 남명 조식은 평생을 초야에 묻혀 학문을 연구하면서 끈질긴 벼슬의 권유를 물리쳤다. 비록 관직은 없었으나 그가 남긴 선비의 정신은 후대를 통해 구국의 사상과 실천으로 구현되었다. 단성소는 임금이 내린 벼슬을 사양하면서 당시 시국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함으로써 조선천지를 뒤흔든 명문이다. (편집자주)

[제수된 벼슬을 사직하면서 단성(丹城)에서 올린 상소라 하여 단성소(丹城疏), 사직소(辭職疏)라고도 한다.]

선무랑으로서 단성현감에 새로 제수된 조식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주상전하께 소를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선왕(중종)께서는 신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시고 처음에 참봉에 제수하셨습니다(1538년임) 그리고 전하께서 왕위를 이으신 뒤에 주부로 제수하신 것이 두번이었는데 지금 또 제수하여 현감으로 제수하시니 떨리고 두렵기가 언덕과 산을 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감히 황종한 자쯤 되는 땅에 나아가서 하늘의 해와 같은 은혜에 사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 것은 목수가 나무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산과 커다란 못 어느 곳에 있는 것이든 재목을 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커다란 집을 짓는 일을 이룩하는 것은 훌륭한 목수가 하는 것이지 나무가 스스로 참여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중략)

신은 벼슬에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의 나이는 예순에 가깝고 학문은 어두우며 문장은 과거시험에 끝자리에도 뽑힐 수 없고 행실은 물 뿌리고 비질하는 일을 제대로 해 내기에도 모자랍니다. 과거시험을 보기 10여 년 동안에 세 번이나 떨어진 뒤 물러났으니 애초부터 과거공부를 일삼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과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마음 좁은 평범한 백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큰일을 할 만한 온전한 인재는 아닙니다.
하물며 그 사람 됨됨이가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는 과거를 보려고 하느냐 과거를 보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신이 이름을 도둑질하여 집사(추천관원)에게 제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했고 집사는 이름만 듣고서 전하에게 제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잘못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과연 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장에 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장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를 지닌 사람은 아니며 도를 지닌 사람은 반드시 신처럼 이렇지는 않습니다. 신에 대해 다만 전하께서 아시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상도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 지 못하면서 등용하여 훗날 국가의 수치가 된다면 어찌 죄가 보잘것없는 신에게만 있겠습니까. 헛된 이름을 바쳐 몸을 파느니 알찬 곡식을 바쳐 벼슬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신이 차라리 신의 한 몸을 저버릴지언정 차마

전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아가기 어려운 첫 번째 까닭입니다. 또 전하의 國事가 그릇된 지 이미 오랩니다. 나라의 기틀은 이미 무너졌고, 하늘의 뜻도 이미 전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비유컨대 큰 나무가 백 년 동안이나 그 속을 벌레에게 파 먹혀 진이 빠지고 말라죽었는데도 그저 바라보기만 하여 폭풍우가 닥치면 견디어 내지 못할 위험한 상태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실정에 있는지가 오랩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가운데 충성된 뜻있는 신하와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공부하는 선비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형세가 극도에 달하여 지탱할 수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손쓸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小官들은 아래에서 히히덕거리며 주색이나 즐기고 大官은 위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오직 뇌물을 긁어모으는 데 혈안입니다. 고기배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데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오라 내신들은 파당을 세워 궁중의 왕권을 농락하고 外臣들은 향리에서 백성들을 착취하여 이리떼처럼 날뛰면서 가죽이 다 닳아 없어지면 털이 붙어 있을 곳이 없는 이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신은 깊이 생각해 보면 탄식만 길게 나올 뿐, 낮이면 하늘을 우러르기 수 차례였고 눈물과 한숨을 누를 길 없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지가 오랩니다. 나라가 이지경이고 보면, 慈殿께서는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밖의 소식이 막힌 깊은 궁궐 안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는 나이 어린 先王의 한 외로운 자식일 뿐입니다. 저 많은 天災와 , 천가래 만 가래로 흩어진 민심을 무엇으로 막고,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냇물이 마르고(국어) 곡식이 비처럼 내리니(회남자) 그 조짐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랫가락이 구슬프고(예기) 입는 옷이 흰색이니 나라가 어지러울 형상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런 때를 당해서 비록 재주가 公과 公을 겸하여 三公의 위치에 있다해도 손을 쓰기 어려운 형편이온데, 하물며 微臣과 같이 아무 힘도 없는 자야 더 말해 무엇하리이까? 위로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조금이나마 부지할 수 없을 것이며, 아래로 터럭만큼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니, 전하의 신하되기 또한 어렵지 않습니까. 추호라도 헛된 이름을 팔아 전하의 벼슬을 도적해서 그 녹만 먹고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그런 신하가 되는 것을 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아가기 어려운 두 번째 까닭입니다. (중략)
유독 전하께서 종사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學問을 좋아하십니까? 聲色을 좋아하십니까? 弓馬를 좋아하십니까? 君子를 좋아하십니까? 小人을 좋아하십니까? 그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전하께서 활연히 깨달으시어 분연히 학문에 진력하사 明德. 新民의 도를 얻으신다면 거기에 萬善이 갖추어져 있어 백가지 應策이 연이어 나올 것이니 그것으로 조치를 취하신다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을 평화롭게 위기를 평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간직하시기만 해도 마음이 비지 않음이 없으며 저울질이 고르지 않음이 없으며 사특한 생각이 나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중략)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마음을 바로 하는 것으로써 백성을 새롭게 하는 요점으로 삼으시고 몸을 수양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쓰는 근본으로 삼으셔서 완도의 법을 세우십시오.
왕도의 법이 왕도의 법답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답게 되지 못합니다. 밝게 살피시길 엎드려 비옵니다. 신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께 아룁니다.

을묘년(1555년) 월 일 조식

이야기 오리대감


와~
아이고 - 나부터 살아야지
이중은 부하를 남겨 도망치
임수의 목을 베게했다
이중신이다 도망가자 -
대체 누구 짓이냐 -
작전은 무너졌다 붙잡지 추적하라!
후퇴! 후퇴!
내가 공을 세운것은 나의 무고를 이원익 대감이 바로 잡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대감의 공이오


양경리와의 인연
대궐에서 전갈이 왔다고?
공이 지금 병약하나 명의 양호 경리가 왔으니 공이 군량이 보급을 맡아 주시오.
신이 지금 병약하나 어찌 나라를 위하는 일을 마다 하겠습니까?
군대는 이미 왔는데 조선의 군량보급이 왜 이리 더디오? 엉!
그 사실을 아오나 아직 당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농이 김희 누구 말에서 -
밖에 아무도 없느냐?


부르셨습니까?
콩!
영길단
호 - 검 좀 나겠지
이놈들이 나를 힘으로 협박하려고!
이 무슨 무례한 짓이오?
돌아이
협박
우리가 본영되면 반드시 복원에서 칠 것이요
보기하군 다른 인간이구나! 쯧 -
봉 - 이만하오 내가 그만 참으하여도 과찰이면 되겠소?
좀 예리하군


결국 이공의 뜻대로 도나 집 뒤에 군량미를 보내고 배적을 돌리지는데 큰공을 세웠다
와~
왜놈 살려 -
이때 명에 보용대인 자가 입법관에
예이 양경리가 베어를 유폐니다요
이란 개념한놈 - 양경리를 파직 시키고 압송하라!!
결국 양경리는 투고하게 파직되고 말았다
떡을 합니다 폐하
폐하! 조선이 큰성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양경리는 공정이군 후후후 누가 사실을 밝히면 에그 - 만되지 안돼
정말 해괴한 일이로다
양경리의 무고를 위해 그생스럽지만 이공이 중국에 다녀 왔으면 하오

이종락 글 · 그림


이공은 다시 중국길에 올랐는데
다온것 같구나
저 첫거라!
저자가 정몽태?
히잉
돌아가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오
신경불 것 없다! 가자!
휙
역 - 날 무시! 날 몰라?
명나라 대궐 (변경)
양경리의 파직 사유는 모두 무고입니다. 이는 정몽태란 자의 모함으로
양경리는 훌륭한 장수입니다. 조선이 큰상을 구축한 것도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듣고보니 이공의 말이 맞소
정몽태란 놈이 소인배여
맞어 맞어
황제폐하께 진달해 무고를 풀어주시오 제발
황제??
험 험 -
황제폐하까지 갈 필요가 있나 -
양경리의 무고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 어찌 태연히 하늘아래 살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겠소
동정사
비장수단이라도 써야 겠구나
양경리의 무고를 풀어주시오
쿵쿵
관물 왜 벗지?
그냥 돌아가느니 내 그냥 자라리 이곳에서 죽고 말겠소.


제발 황제께 진달해 주시오 부탁이오
아 - 말겠으니 그만 고개를 드시오 - 자 -
정말 충신이로다
내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황제께 아뢰어 정몽태의 무고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겠소
이정도면 무고가 풀린것 아니겠소 이상공
오 - 이공이 돌아 왔다고?
없다니 우고가 많았소 내 사신을 통해 내용은 이미 다 들었소
선조는 연전에서 노고를 치하하고 파직철에서 다시 명해철으로 승진시켰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성룡을 탄핵하라! 언된다!
이공은 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상자리를 내놓고 물으로 물러나 앉았다.
전하, 유성룡은 청렴하고 충성이 깊은 사람인데 이렇게 물러나니 나라의 장래가 근심되옵니다
이몽을 뒤서 반대파는 다른 사람으로 영상을 임명하려고 했으나
전하 이 사람이 딱 적격입니다
선조는 그래 얼른 이공을 다시 영의정으로 삼았다.

이야기 오리대감


네 이놈, 세상이 의심스럽다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들을때 즐거워 하기도 하고 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하들이 군주의 비위를 맞추는라 정신이 없는데 현명한 군주는 이를 배척해야 합니다
상감마마 계장 ~
경은 내가 들어서 즐거우면 참언이란 말인가? (얼굴색)
전하 - 신은 듣기 좋은 말만 하여 전하를 즐겁게 해 드리지 못한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신들이 득세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선조는 이공의 말을 크게 새겨 듣는 척하고
나는 옳고 분명한데 세자가 대신 나라 정사 보게 하겠소
이공은 눈물로써 하직하고 북으로 돌아나갔다


이공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많아 이공은 어쩔 수 없었다
전하 이공은 한낱 쫓나적 합니다
나~ 참해
선조 16년 명나라 장병이 귀국하고 북쪽의 여진족 침범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은 먹을게 많다 해
이공이 아니면 아무도 병권을 지킬 수 없다 하니 공을 관서, 관북지방의 도체찰사로 임명하오
전하, 체지 읽어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그럼 서울에서 병무를 보면 되지 않겠소?
일을 함에 어찌 앉아서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북쪽 지방을 순찰하다 선조가 술과를 내려주면서 이하에 서울도 돌아와서 세자와의 직접을 권리주었다
또 보낼 곳사가 많다고 하더래


정택리를 선참하라는데 경들이 후보자를 먼저 추천하시오
신 어때?
자넨 너무 역먹어
우리 곳에서 많이 좀아서
말입이조.
정미? 이런 자를 정택리 리고
독! 간단한 오리대감
다시 추천하시오
철 썩
이렇듯을 비롯해 오리대감 정승 하루 시냇을 좋아. 정택리로 선참하겠다
전하 신은 자격이 없나이다
시호성문사 - 정신해란때 선조를 모시고 의주까지 피난하는데 공이 큰 신하에게 내린 임금의 후장
고성무공신 -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이 큰 신하에게 내린 훈장


광해군 시대
동궁할 때는 반드시 정성껏 예우를 다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많은 신하 중에 오직 이곳이 믿을만 하니
다시 역의정에 오르니 모두 축하를 했다
오리대감이 영상이 되셨다네
정승군 - 잘했어 - 흐흐


전하 - 궁궐을 엄하게 하고 여러사람을 등용해야 조정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또 외로우신 전하의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야 할 것 입니다
선혜청을 두고 대동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을 편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동법이란
각 지방에서 내는 여러가지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내게 하는 조세법으로, 가구당 부과되어 농민들에게
부담이 컸던 것을 땅을 가진 지주들에게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주들은 반대하겠조 이상 선혜청의 양정정 이었습니다
음 - 모두 옳은 소리로다
대동법을 우선 경기도부터 시행케하라!!


농민들만 살고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와
생존권
사수
대동법 결사반대
중간상인들의 살을 보장하라!
반대기 이리도 심한데 어떡할고?
전하 - 반대는 중간상인과 호족들이 이득을 상실할까 그런 것이니 계획대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대동법은 인조1년 충청도와 강원도에 실시했으나 이때도 반대가 심했고 숙종 34년 김육등이 강력히 주장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대동법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공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축이다 시원하네


임부 무리들이 이공을 모함하고 이온 또한 신병이 악화되어 영상자리를 여러번 사직을 표명했다.
전하- 신의 병이 심하옵니다
이공은 현상이나 장성껏 병을 돌보도록 하라
영상의 진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병자에게 책임을 지울수는 없기에 잠시 쉬게하고 나으면 다시 등용할 것이다
이공의 돌아남을 안타까워하는 소리가 잠시자 그해 9월 다시 영상에 임명된다.
내겔로 압절하라는 어명이옵니다
그러나 민심은 다른소리를 내고 있었다.
임금이 폭군이래! 폭군
어머니를 가둬 버리고 동생도 죽였다지


죄를 얻더라도 출연을 하는것이 신하의 도리이거늘
전하 - 지금 민심이 어지럽고 조정은 삼법이 불명하여 정의가 통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뜻이 공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음-
전하가 저신 곳은 궁녀만이 있어 깊은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임부 신하의 말만 듣고 판단하니 걱정이 크옵니다
음-

바다

■ 곽소현 | 광문중학교 3학년 ■

깊은 밤 동안 삼켰던 태양을 바다가 툭 내뱉는 순간

따스한 태양이 바다를 감싸안는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행여나 비라도 내리면

바다는 그 넓은 손을 벌려 모든 것을 감싸안는다.

하루종일 자기 몸을 다 내주고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

조용히 태양을 삼키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이 든다.

나의 마음까지 끌어안은 채 그렇게 잠이 든다.

'밥지의 제왕'을 보고나서

■ 한준희 | 광명1동 ■

영 기서도 떠들썩하게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았던 인디아나존스를 보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긴장, 공포, 스릴, 안도, 등등의 연속)
우선, 가장 제눈에 크게 들어온 것은..
잔인성입니다. 너무 잔인하더군요. 미국 영화평론가들은 "CHOP-CHOP STYLE"로 표현되곤 하는데, 너무 배고, 쑤시고, 자르고, 찌르고... 암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크들의 생김새... 너무 역겨웠는데...
보기 싫을 정도로... (참고로 저는 시각적인데 좀 예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음으로...다른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Planet of the Apes"를 볼 때도 좀 거북했거든요...암튼..)
여기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나쁜 캐릭터..특히 역사물이나 만화, 등등...
그런 캐릭터들은 왜 이상하게 생겨야만 하는지..
멀쩡하게 생기고도 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영화는 문화의 반영이고, 시대의 반영인데...
생각해본 것입니다.

영 화음악!!! 참 좋았습니다. (음악적으로 말고...영화적으로...)
사운드트랙이 이렇게 영화에다가 날개를 다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알수있습니다. 사운드트랙자체가...
사운드 이펙트였습니다. (좋은 극장에서 보세요..THX 가 있는 극장...)
암튼, 전 원작을 읽지 못해서... 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만든 영화인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것은...
CNN에서 뽑은 최근 100년간 우수영화 10선에 이 영화가 들었는데...
Times가 뽑은 올해의 가장 나쁜 영화 10선에도 동시에 들었더군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영화를 사랑하는 취향이나 기호에 따라 이 영화의 골수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안티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많은 영화라 봅니다.

영 화를 잘 보고...생각할 수 있는 습관...
문화는 가치관의 반영이라는데... 세계관...
좋은 영화, 나쁜 영화... 두루두루 보고... 잘 보고...
잘 해석하십시다.

사랑하는 딸에게~ ♡

■ 임무자 | 철산동 ■

형형색색 고운자태를 뽐내며 고운 빛깔을 드러낸 늦가을의 나뭇잎들을 보며,
어느새 훌쩍 자라서 어엿한 청년이 된 너를 생각한다.

11월 5일 수능 시험보는날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우리 딸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였단다.

이과와 문과를 선택할 때 주위에서 의대가기를 강력하게 권하는 것을 뒤로한 채 소신껏 네가 하고 싶은 일 을 재미를 느껴가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며 문과를 선택했을 때
엄마는 네가 선택한 우리딸에게 믿음이 보였단다.

새벽공기를 가르며 자그마한 우리딸보다 더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너의 뒷모습을 볼 때,

늦은 밤 스탠드불 을 밝히면서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불안해하는
너의 모습을 볼 때,

엄마는 너의 모습을 지켜보며 엄마가 대신 해 줄 수 만 있다면..
하는 애처로움과 안쓰러움뿐이었단다.

하지만.
꿋꿋하게 17만 명 의 대열에 서서 시험장에 들어서는 우리딸의 모습에서 대견함과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큰힘을 발견할 수 있었단다.

나의 딸에게 이것만은 꼭 이야기 하고 싶구나
어떤일 이든지 너의 끼로서 꾼의 역할을 하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딸이 되어주기를 ...

고3 수험생의 길을 걸으며..

■ 조 혜 진 | 광문고 3년 ■

지난 1년간의 시간은 나에게 고통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고3이라는 올가미에 잡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것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너무나 하기 싫은 공부였지만 한편으로는 고3이 아니면 해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에 학생의 기분을 맘껏 누려보자는 식으로 공부에 매달렸었습니다. 이왕 닥친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즐기라는 말도 있듯이 한마디로 난 고3을 즐긴 것이었습니다. 사실 난 시험공부라고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일단 무작정 문제집을 한아름 가득 사들고 독서실을 끊고 자리에 앉아있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젼에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와 '저는 끈기가 부족해서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해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자리에 앉아 밤새도록 연필을 깎았습니다. 라는 말이 떠올라 나도 뚜렷하게 무엇을 하기보다는 자리에 무작정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항상 계획뿐인 계획만 짜놓고 정작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 한달, 두 달이 지나고 나도 뭔가 방법을 터득해 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나의 계획에 맞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일 고마웠던 사람은 뭐니뭐니해도 우리 엄마였습니다.
밤늦게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가 별 마주칠 일 없던 엄마였지만 늘어만 가는 나의 짜증을 항상 다 받아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 날 감싸주셨습니다. 전화로 밥은 잘 챙겨먹었느냐, 뭐 먹고 싶은 것은 없냐, 힘들지 않냐며 항상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며 날 늘 챙겨주려고만 하셨는데 그것마저 내가 알아서 한다며 제발 신경좀 꺼달라며 성질을 부리곤 했습니다. 고3이 무슨 큰 벼슬이라고 그렇게 엄마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엄마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저의 기분을 맞추느라 숨죽이며 말소리를 줄이고, 제 공부에 방해가 될까 TV소리도 줄이곤 하셨습니다. 제가 기침 한번하면 보약이며 컨디션 조절할 수 있는 갖가지 약까지..., 하지만 어머니가 제게 챙겨주시는 모든 것들은 솔직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를 위한다는 건 알지만 그런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는 저의 무거운 어깨에 짐을 하나씩 더 싣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 이해하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능시험은 끝이 났지만 어머니의 고마움에 깊이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갈 길, 제가 선택한 미래를 지켜봐 주세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수능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수험생 뿐 아니라 부모님도 각종 수험통증을 호소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제도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하루가 인생을 결정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빨리 개선되어 모든 학생들이 웃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개선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에 맞춰 앞으로의 세대의 수험생이 공부를 하겠지요? 하지만 정말 길고도 짧은 수험생이라는 1년의 시간이지만 정말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고 못 배운 고통은 평생간다는 점을 되새기며 다음번 후배들도 정말 힘들고 마음 아픈 공부를 잘 견뎌냈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후배들인 다음세대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

| 광명문화원 소개 |

광명문화원은 우리 생활속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지역주민의 열린 문화마당 '광명문화원' 으로 오십시오.

"본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1992년 4월 개원한 문화단체로 전통문화계승 · 보존과 지역 문화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광명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 **지역문화행사 개최**
  5월 오리문화제 / 10월 어린이문화장터 등
- **향토사의 조사 및 새로운 문화의 발굴**
  향토사연구소/문화의집
- **지역전통문화의 보존 및 선양**
  오리이원익 기념관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언론활동**
  광명문화저널/광명어린이신문 발행
-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사회교육활동**
  어린이기자단(광명어린이신문)
  어린이영어연극단
  어린이합창단(노래친구들)
  남성중창단
  청소년만화창작단(청개구리)
  청소년연극단(움터)
  청소년영상단(필름창고)
  여성회 주부노래교실
  주부영상단(해오름)
  주부연극단(어울림)

광명문화원 회원의 특별한 혜택

1. 광명문화저널 등 각종 간행물 우송
2. 문화의집 강좌 수강료 10% 할인
3. 오리이원익기념관 프로그램 초청
4. 향토유적답사 등 기행프로그램 우선 초대
5. 여름 · 겨울 캠프 참가비 20% 할인
6. 어린이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10% 할인
7. 문화원 보유자료 및 서적열람 및 대출
8. 취미동아리 결성시 공간 등 편의제공
9. 오리문화제 등 각종행사 자원봉사 등 우선 참여
10. 문화원 회원증 발급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계좌로 입금
  (내방,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연회비 : 30,000원
  입 금 : 농협 099-01-000054 (예금주:광명문화원)
- 문의 및 접수
  광명문화원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22-1 시민회관 3층
  T: 2680-6269/2618-5800 F : 2688-4385
  Home page : www.gmcc.or.kr
  문화의집) T: 2687-0556 F: 2687 0557



| 문화원 임원 및 가족 소개 |



문화원 임원

원 장	안수남	철산2동 성림빌딩 402호 안수남 세무사
부원장	윤 철	광명시 273-4 청소년문화의집관장
부원장	곽향숙	철산3동 241-1 사회체육센타 3층 곽스어학원장
부원장	조상욱	철산동 519-49 포세이돈 하우스 대표이사
감사	장병환	철산2동 463-18 경기매일사장
감사	박준철	종로구 창성동 117(정부종합청사 4층) 교육혁신위원회 특별자문위원
이사	최태천	광명시 하안동 556-16 모범독서실원장
이사	유홍무	광명4동 158-235 전 한빛방송회장
이사	최낙균	시의원
이사	김경표	전 시의장
이사	이계월	광명시 광명4동 158-402
이사	이현정	철산동 220-1 영우프라자빌딩 9층 법무법인 광명 대표 변호사
이사	안성근	광명7동 중앙하이츠 202동 1210호 건축업
이사	민완기	여의도동 맨하턴21 B/D 621호 ㈜하나물산 대표
이사	김지수	광명시 광명동 162-3 기호운수 대표이사
이사	김양주	하안동 53-1 골든힐빌딩 603호 ㈜두레식품 대표이사
이사	김미정	철산3동 245-3호 한영빌딩 3층 매리트어학원장
이사	김광식	광명시 철산동 449-1 KRC넷 상무
이사	최시용	여의도동 24-2번지 월드비젼B/D502 TM솔루션 대표
이사	표옥정	광명시 하안동 230-1번지 광명보건소 과장
이사	이준희	광명시 철산3동 22-1 광명시의회 시의원
이사	김학균	광명시 철산동 258번지 놀부유황오리 대표
이사	박은정	광명시 철산3동 221-1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
이사	구무환	광명시 철산동 484-5 일지서적 대표
이사	정영철	광명시 광명4동 158-776 제일산부인과 원장

문화원 가족

문화원 사무국
철산3동 22-1
2618-5800
사무국장 이종락
관리과장 심평섭
간사 박예순

문화교육연구소
철산3동 222-1
2616-2392
소장 윤철
부소장 이종락
팀장 이은경

문화의집
광명5동 170번지
2680-6156
과장 한욱현
대리 정현혜
간사 권효선

청소년 문화의 집
광명5동 273번지
2680-6163
관장 윤철
운영부장 이은경
간사 이정순
간사 곽정은

오리 이원익 기념관
소하2동 1055-3번지
2680-6307
관장 김영환
간사 조선자

| '2004 광명문화원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여성회|

고문

정원조 예담한의원장 (상임)
백재현 시장
전재희 국회위원
최호진 시의장
남궁진 전문광부장관

자문위원

강석현	서림전자 ㈜대표이사
고완철	광명Y.M.C.A 이사장
구춘회	광명시청의회 사무국장
김갑동	동신건업㈜ 대표이사
김남웅	충현고등학교 교장
김원선	김원선법무사 법무사
김휘열	파보레백화점 이사
박문영	문영건설㈜ 대표이사
박종덕	태서리사이클링㈜ 대표이사
박주홍	㈜신성철강 대표이사
서효석	광명농협 조합장
신경태	광명시의회 (전)의장
안병식	모범약국 약사
윤영호	미도건축 건축사
이강우	광명시새마을지회 지회장
이수남	대명상사 대표
이춘목	중요무형문화제 제28호서도소리 보유자
정영식	㈜아싸 대표이사
조경남	광명Y.M.C.A 부이사장
조용호	광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최문교	광명시 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은숙	나나약국 약사

운영위원

양철원 향토사료 조사위원
임무자 시니어클럽 사무국장
김세경 시정소식 기자
최평자 시정소식 기자
허기용 푸른광명 21 사무국장
서두원 무대예술가

여성회

고문 최연순
회장 윤순남
부회장 이애영
감사 이영숙
노래반장 나종숙



첫눈 내리는 날

제13회 공무원미술대전 동상작

윤한영 (광명시청 근무)

광명시 주최 2004 취미교실

설원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스키캠프

겨울철 레포츠를 통해 스피드와 스릴 넘치는 젊음의 자유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심신단련을 위해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2박 3일 간의 스키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 일 시 : 2004년 2월 16일(월) ~ 18일(수) 2박 3일
- 장 소 :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
- 회 비 : 5만원
- 대 상 : 광명시 중 · 고등학생 (선착순 40명)
- 참가접수 :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 2615-6013 / 2680-6163)

일반시민을 위한 여주 특별한 즐거움



추억의 통기타 교실

요즘 노래 듣기 거북하시다구요
옛날 우리에겐 추억의 통기타와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노래를 기타와 함께 만나보지 않으시렵니까.



역사 유적답사반

역사를 읽고 토론하고 시간이 되면 그 현장을 찾아 나서는 일 함께 하면 즐겁습니다.



기형도 시읽기 모임

광명의 천재시인 기형도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시를 품어 보는 모임입니다.

- 접수기간 : 2004년 2월 28일(토)
- 문의 : 광명문화원(2618-5800)



제 13회 오리문화제 시민 아이디어 를 구합니다.

광명문화원에서 펼치는 시민문화 축제 제13회 오리문화제를 더욱 뜻있고 알차게 치르기 위하여 시민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널리 구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광명문화원(2618-5800)